

제 1대

동명성제 본기

1.주몽의 출생과 성장

삼국사를 다룬 대표적 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동명성제의 성은 고씨,이름은 주몽(또는 추모. 중해라고도 함)이며 해모수와 유화가 그의 부모라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유사'는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를 북부여의 시조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어머니 유화는 하백의 딸이라고 전하고 있다. 한 해모수에게는 부루라는 아들이 있었으므로 주몽과 부루는 이복형제라고 해석하고 있다.이는 유화가 해모수의 두 번째 아내가 되며, 주몽은 그의 서자라는 주장을 가능케 한다. 해모수와 유화의 만남에 대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은 거의 동일한데,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하백의 만딸인 유화가 두 명의 여동생과 함께 놀고 있는데,천제의 아들(곧 천자이므로 왕)이라고 자칭하는 해모수란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온다.그리고 그는 유화를 압록강(요하)가에 있는 어떤 집으로 유인하여 사육을 채우고 떠나버린다.그 후 유화는 임신을 하게 되고,이 때문에 해모수와 관계한 사실이 탄로난다.이에 유화의 부모는 그녀가 부모의 허락도 없이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것을 질책하며 그녀를 우발수에 귀양 보내버린다. 유화를 임신케 한 해모수는 이 무렵 이미 늙은 몸이었다.그에게는 해부루라는 아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금와라는 손자까지 있었기 때문이다.더구나 그의 손자인 금와 역시 장성하여 왕위를 물려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해모수가 유화를 취한 일은 유화가 북부여왕 해모수의 눈에 들어 수청을 강요당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가능케 한다. 어쨌든 아이를 뱀 몸으로 집에서 쫓겨난 유화는 해모수를 찾기 위해 부여 왕궁으로 향했을 것이고,그 과정에서 금와를 만나게 된다. 당시 금와는 동부여의 왕이었다.그는 동부여를 세운 해부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화는 그에게 할머니뻘 되었다.따라서 금와는 유화를 왕궁으로 데려와 보살피게 된다(유화가 금와의 할머니뻘 된다는 사실은 동명성제 14년인 서기전 24년에 유화가 죽자,금와가 태후의 예에 준하여 그녀의 장례식을 치르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동부여의 왕궁에 거처하게 된 유화는 얼마 뒤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그 아이가 바로 주몽이다. 이때가 서기전 58년이다. 주몽은 어릴 때부터 활쏘기에 능했는데,'주몽'이라는 이름도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의미한다. 주몽이 활을 잘 쏘고 용맹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금와의 아들들에겐 위협적인 일이었다.금와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특히 왕위계승권자인 대소는 위협적인 인물인 주몽을 몹시 싫어하였고,그 때문에 누차에 걸쳐 금와에게 주몽을 없애버릴 것을 간언한다.하지만 금와는 대서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는 주몽을 마구간에서 일하게 하여 되도록 대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였다.하지만 주몽이 자람에 따라 대소와 그를 따르는 신하들은 주몽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다.비록 서자라고는 하지만 국조인 해모수의 아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대소에겐 크나큰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대소가 주몽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주몽의 모친 유화는 아들을 도피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이 장차 너를 죽이려 한다.너의 재능과 지략이라면 어디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여기서 더 이상 주저하다가는 해를 당하기 십상이니 차라리 멀리 떠나 큰일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유화의 이 같은 당부를 받아들인 주몽은 오이,마리,협보 등 세 친구와 함께 졸본 땅으로 건너 간다('삼국사기'에 기록된 동명성제의 출생과 성장 이야기 참조).

주몽이 태어난 연대에 대하여 '삼국사기'는 서기전 58년으로 기록하고 있고, '삼국유사'는 서기전 48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서기전 37년의 나이를 고려해볼 때 '삼국유사'의 기록보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더 설득력이 있다.'삼국사기'에 따르면 주몽이 나라를 세운 시기가 22세 때이고,'삼국유사'에 따르면 12세 때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12세의 어린 소년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2.졸본부여로 망명한 주몽과 고구려의 개국

주몽이 대소의 위협을 피해 망명한 졸본부여는 일명 '구려국'이라고 하는 곳이었다. 구려국은 흔히 '고리'. '구리' 등의 이름으로도 불렸으며,부여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구려는 부여,한 등과 마찬가지로 고조선 말기에 형성된 국가로 볼 수 있다. 구려의 위치는 오늘날의 중국 길림성의 통화와 집안,자성강.장자강,요하 유역 일대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삼국유사' 등 일부 사서를 바탕으로 구려가 요동 지역에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비정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당시의 요동과 현재의 요동이 같은 곳이지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 구려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어쨌든 이 구려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주몽은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다. 그리고 그의 탈출 사실을 알게 된 대소는 병졸을 보내 추격전을 벌였으나 주몽을 잡지는 못했다. 사서에서는 주몽이 추격당하던 중에 엄호수라는 큰 강을 만나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이는 그를 신비로운 인물로 만들기 위한 극적 장치에 불과할 것이다. 대소의 군사들을 따돌린 주몽은 모둔곡이라는 계곡에서 3명의 동지를 만난다. 모둔곡에서 주몽이 만난 3명의 동지는 재사,무골,묵거 등이었다. 재사는 삼베옷을 입고 있었고, 무골은 장삼을 입고 있었으며, 묵거는 수초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 주몽은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재사에게는 극씨, 무골에게는 종실씨, 묵거에게는 소실씨 등의 성을 내리게 된다. '삼국사기'-고구려 본기-에서는 주몽이 이때 만난 세 친구를 신하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으며,졸본을 도읍으로 정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또한 그들은 비류수 가에 포막을 짓고 살며 세력을 넓힌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단지 홀홀단신으로 이국 땅에 와서 세 사람의 신하와 더불어 나라를 세운다는 내용이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그래서 '삼국사기'의 편자들은 참고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일설에 따르면 주몽이 졸본부여에 이르렀을 때,그곳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주몽을 만난 후 그가 비상한 사람임을 알고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었고,그 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은 '백제 본기' 온조편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주몽은 북부여에서 난을 피하여 졸본부여에 이르렀다.부여왕은 아들이 없고 3명의 딸만 있었는데, 주몽을 보자 그가 비상한 사람임을 알고 그에게 둘째 딸을 시집 보냈다.그 후 얼마 안 되어 부여왕이 죽고 주몽이 뒤를 이었다."

'백제 본기'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사실로 기록하고 있다.그리고 이 내용은 주몽이 3명의 동지들과 함께 나라를 세웠다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즉 주몽은 북부여에서 도망하여 졸본부여로 갔고, 졸본부여왕에게 자신이 해모수의 아들이자 동부여를 세운 해부루의 이복동생임을 밝혀 졸본부여의 부마가 되었던 것이다(이 부분에 대해서 '삼국사기'-고구려 본기-에서는 북부여에서 졸본부여로 간 것이 아니라 동부여에서 졸본부여로 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백제 본기'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참고적인 내용을 부기하고 있다. 시조 비류왕의 아버지는 우태이니,북부여왕 해부루의 서손이었다(해부루는 북부여왕이 아니라 동부여왕이었다).어머니는 소서노이니 졸본 사람 연타취발의 딸이다.그녀가 처음 우태에게 시집와서 두 아들을 낳았다. 첫째는 비류,둘째는 온조였다.그들의 어머니는 우태가 죽은 뒤 졸본에서 혼자 살았다. 그 후 주몽이 부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서한 건소 2년(서기전 37년) 봄 2월 남쪽으로 도망하여 졸본에 도착한 후 도읍을 정하고,국호를 고구려라 하였으며,소서노에게 장가 들어 그녀를 왕후로 삼았다. 주몽이 나라의 기초를 개척하며 왕업을 창시함에 있어서 소서노의 내조가 매우 컸으므로 주몽은 소서노를 극진히 대했고,비류 등을 자기 소생처럼 여겼다. 그러나 주몽은 부여에서 낳았던 예씨의 아들 유류(또는 유리)가 오자 그를 태자로 삼았다. 그 후 그가 주몽의 뒤를 잇게 되었다.이때 비류가 아우 온조에게 말하기를 "처음 대왕께서 부여의 난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하여 왔을 때,우리 어머니가 가산을 내주어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위업을 도와주었으니, 어머니의 조력과 공로가 많았다. 그러나 대왕께서 돌아가시자 나라가 유류에게로 돌아갔으니 우리가 공연히 여기에 있으면서 쓸데없이 답답하고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살 곳을 선택하여 별도로 도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그래서 마침내 그의 아우와 함께 무리를 이끌로 패수와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와서 살았다는 설도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주몽에게 시집 온 졸본 여자가 이미 2명의 아이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주몽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졸본 여자 소서노의 경제력에 바탕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즉 이 이야기대로라면 주몽이 졸본부여왕의 부마가 된 것이 아니라 졸본 지방 유력자 연타취발의 딸 소서노와 결혼했으며, 그녀의 가문에 의지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뜻이 된다. 이 이야기는 연노부 중심의 고구려가 계루부 중심으로 바뀐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지'-위지 동이전-의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는 연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 등 다섯 종족으로 이뤄져 있었으며,처음에는 연노부에서 왕을 배출했으나 차츰 힘이 미약해져 나중에는 계루부에서 왕이 나왔다고 써여 있다. 이 기록과 소서노 이야기는 일맥상통한다.즉 졸본부여로 망명한 주몽이 계루부의 족장 연타취발의 둘째 딸 소서노와 결혼하여 계루부의 세력 확장에 기여하고 마침내 연노부를 누르고 왕이 됨으로써 계루부 중심의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켰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노부를 중심으로 한 졸본부여의 국호는 '구려'였는데,계루부를 일으킨 주몽이 왕위에 오른 후부터 '위대한','승고한' 등의 뜻을 가진 고를

덧붙여 '고구려'라는 국호를 사용하면서 부족연맹체 성격이 강했던 구려는 중앙집권적 국가인 고구려로 재탄생했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주몽에 의해 처음으로 개국된 나라가 아니라 적어도 고조선 말기부터 구려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어오다가 주몽에 의해서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섰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주몽은 이렇게 고구려를 건국한 다음에 자신의 해씨 성을 버리고 고구려에서 고자를 따서 고씨 성을 취하게 된다.

고구려의 건국연대에 대해서는 '서기전 37년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삼국사기'권22 -고구려 본기-끝에 실린 사론에는 "고구려는 진나라,한나라 이후부터 중국의 동북쪽 모서리에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이는 고구려가 진나라 시대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뜻이 된다. 또 보장왕 27년 2월 기사에는 "고씨는 한나라 때부터 나라를 세운 지 이제 900년이 된다."는 기록도 있다.이 같은 두 기록에 따라 '고구려 900년설'이 대두하여 개국연대를 서기전 277년 또는 217년으로 보는 견해가 생겼다. 이 같은 견해에 바탕하여 일각에서는 김부식이 고구려의 역사를 고의로 왜곡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신라 호족 출신인 김부식이 신라 중심의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 고구려의 개국연대를 신라보다 뒤에 두었으며,그러기 위해서 동명성제 이후 다섯 또는 여섯 황제에 대한 기사를 삭제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비약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이 기록들은 고구려의 역사에 '구려'의 역사를 합친 것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고구려는 구려의 역사 위에서 재탄생한 국가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역사를 구려의 개국 시점부터 계산했다는 뜻이다. '삼국사기'권13 유리명왕 31년 기록에 서한의 왕망이 고구려를 낮춰 부르며 '하구려',즉 '비천한 구려'라고 칭한 바 있는데,이를 보아도 고구려의 역사는 구려를 빼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구려는 '위대한 구려'라는 뜻으로 이해되고,당연히 고구려의 역사에 구려의 역사를 포함시켰을 것이다. 고구려 900년설은 이 같은 설정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정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삼국지'를 비롯한 중국의 사서들은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쓰고 있는데,이는 고려에 대한 영어식 표기인 Korea의 어원이다. 흔히 Korea라는 말이 왕건이 세운 고려에서 연원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왕건이 세운 고려조차도 '고구려'를 계승하기 위해 그 명칭을 답습한 것이기 때문이다. '코리아'가 왕건이 세운 고려에 어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에 어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한국의 영어식 국명인 Korea의 역사를 1천 년 이상 앞당기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 될 것이다).

3. 동명성제의 영토확장전쟁과 고구려의 성장

(서기전 58년~서기전 19년,재위기간:서기전 37년~서기전 19년,약 18년)

동명성제가 왕위에 오르면서 구려는 국호를 고구려로 개칭하고 국가의 위상을 일신하기 위해 대대적인 영토확장정책을 실시한다. 동명성제는 영토확장을 위해서 우선 변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변방에 살고 있던 말갈 부락을 평정하여 말갈이 더 이상 국경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구려가 개국된 서기전 37년에 비류수 상류에 있던 비류국을 고구려에 복속시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비류국왕인 송양을 찾아가 담판을 벌이기도 하였다. 동명성제가 비류국을 찾아가 송양과 담판을 벌이는 장면을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왕은 비류수에 채소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산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왕은 사냥을 하며 그곳을 찾아 올라가 비류국에 이르렀다.그 나라 임금 송양이 나와 왕을 향해 말했다.

"과인이 바닷가 한구석에 외따로 살았기 때문에 한번도 군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오늘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었으니 또한 다행스런 일이 아니겠소.그러나 과인은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있소이다."

그러자 왕이 대답했다.

"나는 모처에 도움을 청한 천제의 아들이요."

이에 송양이 다시 말했다.

"우리 가문은 누대에 걸쳐 왕 노릇을 하였고,또한 땅이 비좁아 두 임금이 지낼 수 없소. 그대가 도움을 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의 속국이 되는 것이 어떠하겠소?"

송양의 이 말에 왕이 분노하여 그와 논쟁을 벌이다가 활쏘기로 기예를 겨루기로 하였다. 하지만 송양은 대항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에서는 단지 동명성제 혼자 비류국을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무력시위를 했을 것이다. 또한 활쏘기 경쟁을 했다는 것은 비류와 고구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송양이 이듬해(서기전 36년) 6월에야 항복을 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류국과 고구려의 전쟁을 동명성제와 송양의 활쏘기 경쟁으로 미화시켜놓은 것은 나중에 제2대 유리명제가 송양의 딸을 황후로 맞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송양이 항복하자 동명성제는 비류국을 '옛땅을 회복하다'라는 뜻의 고구려어인 '다물'도로 개칭하고, 송양을 그곳 왕으로 봉했다. 비류국을 정복한 동명성제는 서기전 34년 7월에

마침내 졸본성을 완성하여 국가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지속적으로 영토확장전쟁을 수행한다. 그래서 서기전 32년 10월에는 오이와 부분노에게 명령하여 태백산 동남방에 있는 해인국을 정복했으며, 서기전 28년에는 부위염으로 하여금 북옥저를 치게 하여 멸망시킨다. 이렇게 하여 고구려는 명실공히 대국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으며 동북지역의 강국으로 성장해 있던 동부여와 대등한 입장이 되었다. 이처럼 영토확장을 통해 고구려를 대국으로 성장시키고 있던 동명성제는 서기전 24년 8월 동부여에서 날아온 비보를 접하게 된다. 동부여 궁궐에 남아 있던 모친 유화 부인이 사망한 것이다. 유화 부인이 사망하자 동부여왕 금와는 할머니뻘 되는 그녀의 장례를 태후의 예로 치른 후 그 사실을 고구려에 통보하였다. 이에 동명성제는 동부여에 사신을 보내 자신의 어머니 장례를 태후의 예로 거행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토산물을 보냈다. 이는 동부여왕 금와가 고구려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다. 하지만 금와가 죽고 그의 장자 대소가 왕위에 오르면 동부여와 고구려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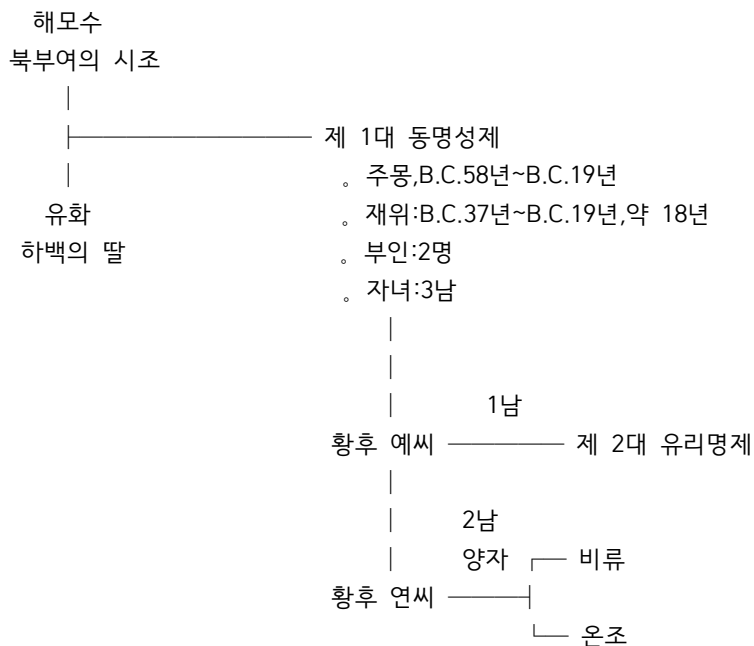
대소가 언제 왕위에 올랐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서기전 19년 4월에 동명성제의 첫 부인 예씨와 아들 유리가 동부여에서 도망쳐 고구려로 온 것을 볼 때, 이 무렵에 대소가 왕위에 오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금와가 죽고 동명성제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던 대소가 왕위를 이어받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거나 아니면 대소의 즉위로 아내와 아들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동명성제가 사람을 시켜 그들을 고구려로 데려오도록 조치했을 것이란 뜻이다. 그리고 어쩌면 동명성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유리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 일부러 사람을 시켜 그들을 부여에서 데려왔을 가능성도 있다. 유리가 고구려에 오자 동명성제는 그를 곧 태자로 삼았으며, 5개월 뒤에 40세를 일기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이 같은 추측을 가능케 한다. 능은 졸본 근처의 용산에 마련되었으며 묘호는 동명성제, 즉 '동방을 밝힌 성스러운 임금'이라 하였다. 졸본의 위치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능이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도 단언할 수 없다(졸본의 위치에 관한 내용은 '첫 도읍지 졸본의 위치'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고구려의 개국조인 주몽과 나머지 임금들의 묘호에 '왕'이 아닌 '제'를 붙인다. 묘호에 '왕'을 붙이는 것은 그 나라가 제후국임을 의미하고, '제'를 붙이는 것은 그 나라가 자주적인 종주국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고구려조의 묘호에 제를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삼국유사'에서 '동명성제'라 표기하고 있고, 제 6대 태조대에 칭제건원(제라 칭하고 연호를 정함)의 흔적이 있으며, '광개토제 능비문'에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게다가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 땅을 차지한 요나라의 칭제건원과 요나라를 무너뜨린 금나라의 칭제건원 역시 고구려의 칭제건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비의 칭호도 '황후'로 표기한다. 물론 동명성제 때부터 고구려가 종주국으로 군림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묘호는 후대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이 관례이기에 동명성제부터 '제'로 표기하고, 그의 아내들의 칭호도 황후로 표기한다. '삼국사기' 이후 줄곧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묘호를 '왕'으로 칭했는데, 이는 '삼국사기'가 갖는 한계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삼국사기'를 편찬할 당시 고려는 고구려의 후계임을 밝힌 바 있지만, 한편으론 송과 금의 틈바구니에 끼인 약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조의 묘호에 '제'를 붙이지 못하고 '왕'을 붙였다는 것이다. 만약 '삼국사기'의 고구려조 묘호에 '제'를 붙였다면 당연히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조의 묘호에도 '제'를 붙여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려는 그럴 입장이 못 됐다. 고려는 송, 거란 등과 조공외교를 하고 있었고, 거란을 멸망시키고 힘을 팽창시키고 있던 금과도 그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려가 고구려조의 묘호에 '제'를 쓰고, 또 고구려를 계승한 자신들의 묘호에도 '제'를 쓴다면 심각한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묘호에 '제'를 붙인다는 것은 곧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칭제건원의 의미이다. 고려가 칭제건원할 경우 심각한 외교적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위협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연호는 당시 동북아 사회의 외교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그 같은 외교관계의 틀 속에서 무역과 전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각국의 역사를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로 쓰고 있다. 당시 역사서 서술에서 황제국의 역사는 '본기'라 하고 제후국의 역사는 '세가'라 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록 삼국의 묘호에 '제'를 붙이지는 못했지만 삼국의 역사서를 세가가 아닌 본기라고 칭함으로써 '삼국사기' 편찬자들은 삼국이 제후국이 아닌 자주적인 종주국이었음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다. '삼국사기'와는 달리 조선 문종대에 완성된 '고려사'에서는 고려의 역사를 본기가 아닌 세가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는 확인된다. 하지만 고려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고구려조의 묘호에 '제'를 붙이지는 못하고 '왕'을 붙였을 것이고, 고구려보다 약자였던 신라와 백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신라와 백제의 묘호에 대해서는 각국의 본기에서 별도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참고로 고려조 제10대 정종, 제11대 문종 등은 '제#임금 제#' 대신 '제#역제할 제#'를 사용하여 '왕'이라는 호칭을 피하고 '제'를 칭한 사실이 있음을 밝혀둔다).

'삼국사기'는 편찬된 이후에 송나라에 보내졌다는 기록이 있고,또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금나라에도 보냈을 것이다.이는 '삼국사기'가 단순히 국내 보관용이 아니라 대외 홍보용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삼국사기'에 유난히 '조공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고려는 예로부터 외교관례를 잘 지켜온 국가임을 송이나 금에 강조하여 외교상의 대의 명분을 얻고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는 뜻이다. '삼국사기'에 조공 기록이 많다 하여 지금껏 김부식을 사대주의자로 몰아가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는데,이는 근본적으로 당시의 외교관습을 전혀 모른 데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임을 알아야 한다.또한 '삼국사기'를 단순히 김부식 개인이 작성했다고 보는 시각도 문제이다. '삼국사기'편찬에 있어 김부식이 중심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김부식이 모든 자료를 모으고 기록한 것은 아니다.김부식 이외에도 10명의 학자가 이 작업에 참여했으며,작업에 참여한 10명의 학자는 모두 국가의 관리들이었다.말하자면 '삼국사기'는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 김부식 개인의 판단에 의해 편찬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따라서 '삼국사기'의 내용을 김부식 개인의 사상으로 몰아가는 시각은 사라져야 한다.

4.동명성제의 가족들

제 1대 동명성제 가계도



동명성제는 부여 출신 황후 예씨와 졸본 출신 황후 연씨(소서노) 2명의 부인을 두었으며,이들에게서 3명의 아들을 얻었다.예씨 소생으로는 유리명제가 있으며, 연씨 소생으로는 비류와 온조가 있다.여기에서는 이들 중 예씨와 연씨의 삶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한다(유리명제는 유리명제본기에서 언급하기로 하고,비류와 온조에 관한 내용은 '신삼국사기-백제 본기-'제 1대 온조'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황후 예씨(생물년 미상)

제 1황후 예씨는 부여 여자로 동명성제가 동부여에 머무를 때 시집왔다.그녀가 언제 결혼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주몽이 동부여를 떠날 때 유리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혼시점이 주몽의 망명시기와 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몽이 졸본으로 망명하던 시기는 그가 왕위에 오르기 1년 전쯤인 서기전 38년경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주몽과 예씨의 결혼시기는 서기전 38년 또는 39년일 것이다. 주몽이 떠난 후에 그녀는 계속 동부여에 머물러 있었다.아마 이때 그녀는 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과 함께 지냈을 것이다.그리고 주몽이 떠난 지 몇 개월 후 유리를 낳아 혼자 길렀으며,서기전 19년 5월에 유리와 함께 고구려로 와 황후가 되었다. 소생으로는 유리명제 1명뿐이며,능과 죽음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황후 연씨(서기전 66년~서기전 6년)

제 2황후 연씨는 구려국(졸본부여) 계루부 족장 연타취발의 둘째 딸로 이름은 소서노이며 서기전 66년에 태어났다. 연타취발은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었다. 그는 동부여를 탈출하여 자신을 찾아온 주몽을 대한 후, 그의 뛰어난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둘째 딸 소서노를 그에게 시집 보낸다. 이때가 서기전 38년경으로 소서노의 나이 29세 때쯤의 일이다.

일설에는 그녀가 주몽에게 시집 오기 전에 우태라는 사람과 결혼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에게서 비류와 온조를 낳았으며, 우태가 죽은 후에 졸본에서 혼자 살다가 동부여에서 도망온 주몽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서노의 나이가 주몽보다 여덟 살이나 많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즉 소서노가 서른이 다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않고 있다가 21세의 주몽과 결혼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당시에는 대개 10대 후반이면 남녀가 결혼을 하였다. 그런데 부족장의 딸인 소서노가 서른이 가깝도록 시집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소서노가 시집을 갔다가 남편과 사별하여 아이들을 키우며 혼자 살다가 주몽과 재혼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일설에는 주몽이 서기전 58년 태생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태어났다는 말도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소서노가 서른이 넘어서 주몽과 결혼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주몽이 여덟 살이나 위인 여자와 결혼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아무런 기반도 없는 이국 땅에서 주몽이 연타취발의 사위가 될 가능성은 희박했겠지만 부족장인 연타취발의 딸 소서노가 주몽보다 여덟 살이나 많고 아이도 둘씩이나 딸려 있는 경우라면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더구나 주몽은 지략과 무술을 겸비한 유능한 젊은이였기에 소서노와 연타취발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주몽은 자신의 야망을 펼치기 위해 정치, 경제적 기반이 탄탄했던 소서노와 결혼하여 그녀의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았다는 뜻이다. 이를 증명하듯 주몽은 소서노와 결혼함으로써 계루부의 중요 인물로 부상한다. 그리고 이때 주몽은 능력을 발휘하여 계루부의 힘을 강화시킨다. 당시까지만 해도 구려의 정치는 연노부 중심으로 이뤄졌고, 왕도 연노부에서 세웠다. 하지만 주몽에 의해 계루부가 막강해지면서 연노부는 밀려나고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주몽은 바로 계루부가 배출한 첫 번째 왕이었던 것이다. 연씨는 주몽이 이처럼 고구려를 개국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정치,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고구려 개국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그녀는 주몽이 죽은 뒤에 고구려를 떠나야만 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 서기전 19년에 동부여에 살고 있던 주몽의 첫 부인 예씨와 원자 유류(유리)가 고구려에 오고, 유류가 태자로 책봉되면서 연씨는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녀는 주몽이 죽자 자신의 족속들과 함께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남쪽으로 떠난다. 남쪽으로 떠난 소서노 일행은 다시 두 파로 갈라진다. 비류가 한 무리를 형성하여 미추홀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고, 온조가 나머지 무리들과 함께 위례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던 것이다. 소서노는 온조 일행과 함께 위례에 머무른다. 그리고 그곳에서 13년을 더 살다가 서기전 6년에 6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능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번 호] 24 / 46

[등록일] 97년 12월 14일 23:19

Page : 1 / 7

[등록자] LUCIATO

[제 목] [정보/호림] 신삼국사기 고구려본기 1-5

제 1대

동명성제 본기

5. '삼국사기'에 기록된 주몽의 출생과 성장 이야기

고구려를 개국한 동명성제에 개한 이야기는 한국과 중국의 여러 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한국측 기록은 '광개토제 능비문'을 비롯하여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의 지리지 등에 실려 있으며, 중국측 기록은 '위서', '주서', '양서' 등에 실려 있다(광개토제 능비의 정식 명칭은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비'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개토제 본기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들 중 한국측 자료들의 편찬시기를 살펴보면 '광개토제 능비문'은 현재 남아 있는 건국 이야기 중에서 가장 오래 된 것으로 5세기 초엽에 작성된 것이며,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때인 1145년 김부식의 주도하에 국가사업으

로 편찬된 정사이다.또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 때의 승려 일연이 13세기 말에 쓴 역사서이고,'제왕운기'는 고려 충렬왕 때인 1287년 이승휴가 쓴

것이며,'세종실록'의 지리지는 조선 단종 때인 1453년에 완성된 '세종실록'에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측 사료인 '위서'는 북위(316~535)의 역사로서 북제(550~577)의 위수가 554년에 편찬한 책이며,'주서'는 '북주서'또는 '후주서'라고도 하며 북주(557~581)의 역사로서 당나라 영호덕분(583~666)이 편찬한 책이다.또 '양서'는 중국 남조 시대의 국가인 양(502~557)의 역사를 다룬 책으로 진나라 사람 요찰과 그 아들 요사렴이 636년경에 쓴 것이다.

이 밖에도 '수서','북사' 등에도 '위서','양서'의 내용과 비슷한 고구려 건국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사서들의 기록은 지명이 몇 개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데,'삼국사기' 권 13 -고구려 본기- 동명성왕편의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다.이에 '삼국사기'에 기록된 주몽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싣는다.

시조 동명왕의 성은 고씨이고,이름은 주몽(추모 또는 중해)이다.

이 일에 앞서 부여왕 해부루가 늙을 때까지 아들이 없었다.그는 산천에 제사를 드려 아들 낳기를 기원하였다.하루는 그가 탄 말이 곧연에 이르렀는데,그곳에 있던 큰 바위를 보고 말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왕이 사람들을 시켜 그 바위를 굴려보게 하였더니 개구리 모양을 한 황금색의 어린애가 있었다.왕이 기뻐하여 "이는 바로 하늘이 내게 준 아

이로다." 하고 말했다.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와 금와라는 이름을 주고 길렀고,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국상 아란불이 말했다.

"어느 날 하느님이 나에게 내려와 이르되 '장차 나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곳에 나라를 세울 것이니,너는 여기서 떠나라.동쪽 바닷가에 가섭원이라는 곳이 있는데,땅이 기름져서 오곡을 재배하기에 적합하니 가히 도읍으로 삼을 만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란불은 이렇게 왕에게 권하여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게 하였다.그 후 왕은 국호를 동부여라고 했다.그리고 그 옛 도읍지에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자칭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그곳에 도읍을 정하였다.

해부루가 죽자,금와가 왕위를 이었다.이때 금와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 그녀의 사연을 물었다.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하백의 딸 유화입니다.동생들을 데리고 나가 놀았는데,때마침 한 남자가 자칭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나를 웅심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여 사육을 채우고,그 길로 떠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나의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남자와 관계한 것을 꾸짖고,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금와가 그 말을 기이하게 여기고 그녀를 방에 가두었는데,그녀에게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그리고 그녀가 몸을 피하면 햇살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이로 인해 태기가 비치더니 다섯 되들이의 큰 알을 낳았다.

왕은 그 알을 가져다가 개와 돼지에게 주었다.하지만그 짐승들은 이를 먹지 않았다.그래서 다시 길가에 버렸더니 지나가던 소와 말이 피하며 밟지

않았다.이에 나중에는 들판에 갇다버렸더니 새들이 날개로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왕은 마침내 그것을 쪼개려 하였다.하지만 깨뜨릴 수가 없었다.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미가 그것을 감싸서 따뜻한 곳에 두니,한 사내아이가 껌질을 깨뜨리고 나왔다.그의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였다.

그의 나이 7세에 보통 사람과 크게 달라서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부여 속담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기 때문에 이로써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금와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다.그들은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그들의 재주가 모두 주몽을 따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의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했다.

"주몽은 사람이 낳지 않았으며,그 사람됨이 용맹하므로 만일 일찍 처치하지 않으면 후환이 생길까 두렵습니다.그러니 청컨대 그를 없애 버리소서."

그러나 왕은 그의 청을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였다.주몽은 여러 말 중에서 빨리 달리는 말을 알아내어 그 말에게는 먹이를 적게 주어 여위게 하고,아둔한 말은 잘 길러 살찌게 하였다.왕은 살진 말은 자기가 타고

여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훗날 들에서 사냥을 하는데 주몽은 활을 잘 쏘다 하여 화살을 적게 주었다.하지만 주몽이 잡은 짐승이 훨씬 더 많았다.

왕의 아들과 여러 신하들은 주몽을 죽이려 하였다.주몽의 어머니가 그들의 계락을 몰래 알아내고 주몽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장차 너를 죽이려고 한다.너의 재능과 지략이라면 어디간들 살지 못하겠느냐.여기에서 주저하다가 해를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멀리 가서 큰일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듯하구나."

이에 주몽은 오이,마리,협보 등 세 사람과 벗이 되어 엄호수에 이르렀다(엄호수는 개사수라고도 하는데 현재의 압록강 동북방에 있다).거기에서 강을 건너려고 하였으나 다리가 없었다.그래서 그들은 추격해 오는 군사들에게 붙잡힐까 염려하였다.그때 주몽이 강을 향하여 말하였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하백의 외손이다.지금 도망 중인데 뒤쫓는 자들이 추격해 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물 위로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다.그 덕분에 주몽 일행은 강을 건널 수 있었다.그러나 물고기와 자라는 곧 흩어졌으므로 뒤쫓아오던 기병들은 강을 건너지 못하였다.

주몽이 모둔곡에 이르러 세 사람을 만났다('위서'에는 '보솔수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한 사람은 삼베옷을 입고 있었고,한 사람은 납의(장삼)를 입었으며,나머지 한 사람은 수초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주몽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어떤 사람이며 성과 이름은 무엇인가?"

삼베옷을 입은 사람은 '재사'라고 했으며,장삼을 입은 사람은 '무골'이라고 했고,수초로 옷을 만들어 입은 사람은 '목거'라고 했다.하지만 성은 말하지 않았다.그래서 주몽은 재사에게는 극씨,무골에게는 중실씨,목거에게는 소실씨의 성을 지어주었다.그리고 곧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자 합니다.그런데 때마침 세분의 현인을 만났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주몽은 드디어 재능에 따라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위서'에는 '홀승골성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그들은 그곳의 토지가 비옥하고 산하가 험준한 것을 보고 마침내 그곳을 도읍으로 정하였다.그러나 미처 궁실을 짓지 못하였으므로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또한 국호를 고구려라고 하고 이를 따라 '고'를 성으로 삼았다.

일설에는 졸본부여에 이르렀을 때 아들이 없던 그곳 왕이 주몽을 보자 비상한 사람임을 알아보고 자신의 딸을 그의 아내로 삼게 하였으며,그 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주몽의 출생부터 즉위까지의 과정이다.이 내용 중 일부는 주몽을 신비화하기 위한 장치일 것이다.이를테면 알에서 태어났단지,또는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자라와 물고기들의 도움을 받는 것

들이 이에 해당한다.하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사서들에 실린 내용도 이와 비슷한데,다만 '삼국유사'에서는 해모수와 해부루의 관계를 좀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삼국사기'에서는 해모수와 해부루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삼국유사'는 -북부여전-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한 선제 신작 3년 임술(서기전 59년) 4월 8일 천제가 5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홀승골성에 내려와서 도읍을 정하고 스스로를 왕이라 일컬으며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고 하였다.그는 자칭 이름을 해모수라고 하였으며,아들을 낳아 부루라고 하고 '해'씨로 성을 삼았다.그 후 왕은 상제의 명령에 따라 동부여로 옮기게 되고 동명제가 북부여를 이어 졸본주에 도읍을 세우고 졸본부여가 되었으니 곧 고구려의 시조이다."

또 '삼국유사'는 -고구려전-에서 '단군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부루와 주몽이 이복형제일 것이라는 주석을 달고 있다.그리고 이 같은 주장은 금와가 유화 부인을 태후의 예로 장사지낸 것이나 주몽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실 등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번 호] 25 / 46 [등록일] 97년 12월 14일 23:19 Page : 1 / 5
[등록자] LUCIATO
[제 목] [정보/호림] 신삼국사기 고구려본기 1-6

제 1대
동명성제 본기

6.첫 도읍지 '졸본'의 위치

고구려의 첫 도읍지에 대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졸본'으로 기록하고 있고,'광개토제 능비문'에서는 '홀본','위서'에서는 '홀승골성'으로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이 세 지명은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구려의 첫 도읍지를 졸본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삼국사기'는 동명성왕 4년(서기전 34년) 7월에 졸본성의 궁실과 성곽이 건축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그런데 주몽이 즉위하기 이전의 구려국을 졸본부여라고 했던 것을 보면 주몽이 도읍으로 정하기 이전에 이미 졸본은 구려의 수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때문에 주몽이 창건한 졸본성은 구려국 시대에 있던 성곽의 규모를 확장시킨 것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졸본 내에 주몽

이 축성한 또 다른 궁성을 지칭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즉위 3년 만에야 비로소 졸본성을 완성한 것을 감안할 때 후자, 즉

고구려의 첫 궁성인 졸본성은 주몽이 새롭게 축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따라서 동명성제 당시 졸본에는 구려국 시대의 궁성과 고구려 시대의 궁성이 함께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처럼 졸본성이 두 개였다고 할지라도 고구려의 첫 도읍지가 졸본에 건설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구려가 첫 도읍지로 선택한 졸본의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졸본의 위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은 대개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 번째는 오녀산성설이다. 지금의 만주 환인 북쪽 환인분지 내 해발 약 800미터의 산지에 축성된 이 오녀산성은 남북 약 1,000미터, 동서너비 약 300미터의 비교적 큰 규모의 성이고 부근에는 환인현 고령묘자촌의 적석총(돌을 쌓아 만든 무덤으로 일명 돌무지무덤)을 비롯한 많은 고분군이 있다. 하지만 이 고분군만으로 이곳을 졸본이라고 비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우선 졸본을 언급하면서 오녀산성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고고학을 바탕으로 한 유적지 중심의 사관은 고고학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다른 유적지의 출현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일회적이고 가변적인 추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방법에만 의존할 경우 역사의 현장은 수시로 옮겨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요동설로 '삼국유사'를 쓴 일연의 주장이다. 그는 -고구려전-에서 "고구려는 졸본부여이다. 더러는 졸본주가 지금의 화주(함남 영흥) 또는

성주(평남 성천)라고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는 요동 지역에 있다."고 쓰고 있다.

이는 다음의 '삼국사기' 보장왕 4년 5월의 당태종에 의한 요동성 공략 기사에서도 드러난다.

"이세적이 밤낮을 쉬지 않고 요동성을 공격한 지 12일째에 당나라 왕이 정병을 이끌고 합세하여 성을 수백 겹으로 둘러싸니 북과 고함 소리는 천지를 흔들었다. 성에는 주몽의 사당이 있고 사당에는 쇠사슬갑옷과 섬모(날카로운 창)가 있었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요동성에 주몽의 사당이 있다고 했다. 국조의 사당이 첫 도읍지에 있거나 궁성에 있었다면, 요동성은 당시 궁성이 아니었으므로 첫 도읍지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국조의 사당이 궁성 또는 첫 도읍지에만 있었다는 가정이 사실로 입증될 때만 성립될 수 있는 논리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또 있다. 그것은 요동성에 있던 "(주몽의) 사당에 쇠사슬갑옷과 섬모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쇠사슬갑옷과 섬모는 분명 주몽의 것이거나 아니면 주몽과 관련된 어떤 인물이 남긴 물건일 것이다. 따라서 이 특별한 갑옷과 섬모는 단 하나 뿐일 것이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곳에 보관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곳이 요동성이었다면 요동성은 도대체 당시의 어떤 곳이었겠는가? 이 물음은 다시 요동이 처음으로 도읍한 곳, 즉 졸본이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하지만 졸본이 요동에 있었다는 주장이 옳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고려 시대의 요동와 고구려 건국 당시의 요동의 위치가 같은 곳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동이란 요수의 동쪽을 일컫는다. 하지만 고구려 당시의

요수가 현재의 요하(랴오허)였다는 주장과 현재의 난하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때문에 요동을 요하의 동쪽에 설정해야 할지, 아니면 난하의 동쪽에 설정해야 할지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요하를 당시의 요수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난하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

중국 전국 시대인 서기전 480년에서 서기전 222년 사이에 편찬된 '산해경'에는 "요수는 위고의 동쪽을 나와서 동남으로 발해에 흘러 들어가며 요양에 들어간다."고 써어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기록을 '요수는 위고의 동쪽을 나와서 동남으로 흘러 요양을 지나 발해로 흘러들어간다.'고 고쳐야 옳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고쳤을 경우 요수는 오늘날의 난하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요동 지역은 오늘날의 난하 동쪽을 의미하게 된다.

하지만 이 주장은 다소 작위적인 면이 있다. 말하자면 요수를 난하로 설정하기 위해 기록을 변형시켜 해석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좀더 확실한 증거가 요구된다. 중국측이 말하는 요수가 난하였다는 것은 수나라의 양광이 고구려를 침입하기 위해 군사를 결집시킨 곳이 난하의 서쪽이라는 사실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다음은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삼국사기'의 내

용이다.

"22년 봄 2월, 수나라 양제가 조서를 내려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였다. 여름 4월, 양제의 행차가 탁군의 임삭궁에 도착하니 사방의 군사들이 모두 탁군으로 모였다." (영양왕 22년)

여기서 양광이 군사를 결집시킨 '탁군'은 지금의 북경이다. 그리고 여기서 결집된 수나라 군사 113만 대군은 이듬해 정월에 양광의 출전명령에 따라 고구려로 진격한다. 그 후 그들의 출정식은 약 40일간에 걸쳐 이뤄졌는데, 그 기간 중에 양광의 군대는 요수에 이르렀다. 양광이 탁군에서 출정식을 가진 것은 탁군이 고구려와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탁군(북경)에서 동쪽으로 100여 리를 나아가면 난하가 나온다. 하지만 요하는 탁군에서 적어도 1,300여 리를 가야 도착할 수 있다. 때문에 양광이 탁군에서 군대를 결집시킨 것은 난하를 건너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한다. 말하자면 난하가 당시 고구려와 수나라의 경계였다는 뜻이다. 그리고 당시 그록은 고구려와 수나라의 경계를 요수라고 기록하고 있기에 수나라가 건넌 요수는 난하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에 따라 중국측의 요수는 난하이고, 중국의 요동이 난하 동쪽이라면 요동에 있었다는 졸본 역시 난하 동쪽에 비정해야 한다. 즉 졸본이 요동에 있었다고 해서 꼭 현재의 요하 동쪽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삼국유사'는 현재의 요하를 고구려 당시에는 압록수라고 지칭했다고 쓰고 있는데 이 역시 난하가 요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고구려의 형성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동명성제 시대의 고구려 주변 국가들의 면면을 파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주몽의 고향이자 제 2대 유리명제의 고향이기도 한 부여, 영토확장정책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말갈, 최초로 고구려에 복속된 비류, 그리고 다음으로 복속된 해인과 복옥저 등은 고구려 초기의 영토 문제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성들이 어떤 민족들로 구성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동이족에서 흘러나온 예맥족이 중심이 되어 형성한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 국가들을 형성한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는 동이와 예맥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이에 동이, 예맥에 대해 언급하고 부여, 말갈, 비류, 해인, 옥저 등의 성립시기 및 위치와 영토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술한다.

동이

'동이'라는 말은 초기에는 하나의 민족을 의미하기보다는 중국의 한족들이 자신들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른 명칭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렇지만 동이는 단순히 한족들의 동쪽에 머무른다는 의미만 있지는 않았다. 동이를 풀이하면 '동방의 이'족이란 뜻인데, '이'에 대하여 중국 최초의 문자학 서적으로 후한 때 허신이 편찬한 '설문해자'는 "큰 것을 따르고 활을 따르는 동방의 사람들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설명은 이족이 '큰 것을 숭상하고 활을 잘 다루는' 특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동이는 단순히 한족이 머무르던 곳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지향하고 활을 잘 다루는 동방의 종족'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몽이 활을 잘 다루었다는 사실은 이 같은 동이족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즉 활을 아주 잘 다룬다는 것은 동이족의 왕이 될 자질을 갖추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활을 잘 쏘아 왕이 된 예는 비단 주몽에 한정되지 않는다. 회수 유역의 서연왕이나 유궁(하나라 시대에 지금의 산둥성에 있던 나라)의 예왕도 활을 잘 쏘아 왕이 됐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으며, 조선을 세운 이성계도 활의 명인이었다. 말하자면 동이족은 나라를 세우는 인물이 갖춰야 하는 덕목의 하나로 궁술을 꼽았던 것이다.

그러나 동이족은 단순히 궁술만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후한서' -동이전-에

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동방을 이라 한다. 이는 곧 뿌리이며, 어질고 살리기를 좋아한다고들 한다. 모든 것은 땅에 뿌리박고 있으므로 천성이 유순하고 도로써 다스리기 쉬워서 군자의 나라이자 죽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 기록은 '큰 것을 숭상하고 활을 잘 다룬다'는 '이'의 두 가지 특성 중에서 '큰 것을 숭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큰 것'이란 크고 원대한 자연과 우주의 이치를 말하며, 곧 '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족'이란 '도를 숭상하고 활을 잘 다루는' 특성을 가진 종족이라는 뜻이 되며, '동이족'이라고 했을 때는 '도를 숭상하고 활을 잘 다루는 동방의 종족'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동이족은 대개 건. 우. 방. 황. 백. 적. 현. 풍. 양이 등 9종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한족의 활동영역이 동쪽으로 확대되면서 점차 중원에서 밀려나와 중국의 동해(황해)안과 북방에 밀집된다.

한족에 의해 동쪽과 북쪽으로 밀려난 동이족은 한과 예맥으로 불리게 된다

.주로 발해만을 기점으로 황하의 동북 방향 쪽에 머무르던 사람들은 예맥을 형성했으며, 중국의 동해(황해) 연안과 한반도 및 그 주변 지역, 일본 열도 등에 머무르던 사람들은 한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는 예맥이 중심이 되어 점차 한과 주변 부족들을 흡수하는 형태를 거쳐 강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예맥

예는 '예' 또는 '예'로 기록되어 있다. 먼저 예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면 예라는 한자를 '벼농사를 지으면서 매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예가 '물을 좇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예(다음 예)로 바뀌게 되는데, 이 또한 벼농사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즉 벼농사를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와 '예'는 같은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맥은 대개 '맥' 또는 '맥'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맥은 신화적인 동물인 '맥'을 의미하거나 '북쪽'을 의미한다. 맥은 불을 뿜는 동물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는 흡사 불을 잡아먹는 상상의 동물인 해태를 연상케 한다. 따라서 이 경우 '맥'은 '맥을 숭배하는 사람들' 또는 '맥이라는 동물을 연상케 하는 차림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맥을 단순히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경우, '맥'은 '북쪽에 사는 사람들'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쪽에 사는 사람이 당시 맥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해석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런 의미의 예와 맥은 흔히 예맥으로 통칭된다.

예맥에 대해서는 예와 맥을 하나의 종족으로 보는 예. 맥 동종설과 예와 맥을 따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예. 맥 이종설이 있다. 동종설에서는 예는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고 맥은 국명이기 때문에 예맥이라 함은 '예족이 세운 맥국'이라고 주장하고, 이종설에서는 예와 맥은 동이에서 나온 다른 부족인

데 서기전 2세기를 전후하여 예맥으로 융합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견해들은 사마천의 '사기'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기록들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예와 맥에 관련된 사서의 기록들을 훑어보면 그들의 관계를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예에 대하여 살펴보면 '후한서'-부여전-에서는 "부여국은 현도 북방 1천 리에 있으며, 남으로는 고구려와 더불어 있고, 동으로는 읍루와 더불어 있으며, 서로는 선비와 접해 있고, 영역이 2천 리이며, 본래 예의 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 -예전-에서는 "예는 북으로는 고구려, 옥저와 더불어 있고, 남으로는 진한과 더불어 접해 있고, 동쪽은 큰 바다이며, 서쪽은 낙랑에 이른다."고 쓰고 있다. 이 같은 기록은 예가 원래는 부여 지역을 비롯한 북방을 아우르는 큰 나라였으며, 고구려 성립 이후에도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다음으로 맥에 대한 기록은 '후한서'-고구려전-에서 "구려는 일명 맥이다. 따로이 별종이 있어 소수 가에 의지하여 살아 소수맥으로 불린다."하였다. 이는 구려가 맥인이 세운 국가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서'-왕망전-의 고구려에 대한 기록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왕망이 고구려 병력을 동원하여 호를 치는 데 충당시키려 하자 고구려가 거부했다. 군에서 강제로 하려 하자 모두 변방으로 도망갔다. 이들이 범법의 도적으로 변하자 요서의 대운 전담이 추격하러 갔다가 잡혀 죽었

다.주군이 돌아와 고구려의 후추를 탓하자 엄우가 상주하여 말하되 '맥인이 법을 어긴 것은 후추가 적극 나서서 말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마땅히 다른 뜻이 있는 듯하니 주와 군에 명하여 장차 이들을 달래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지금 그들이 대죄를 지은 것이 겁이 나 반란을 일으켜 부여의 무리와 연합할까 두렵습니다.홍노도 아직 이기지 못한 상황에서 부여와 예맥이 다시 일어나면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라고 하였다.그러나 왕망이 이를 무시하자 드디어 예맥이 배반하고 나섰다."

이 기록에서는 맥과 예맥을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즉 고구려인을 맥인이라고도 부르고 예맥으로도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고구려인을 예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이는 고구려의 중심세력이 적어도 예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말하자면 고구려는 맥인이 중심이 되어 세운 국가이지만 점차 예인들을 복속해나갔다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예와 맥은 처음부터 하나의 국가를 이룬 하나의 부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하지만 고구려가 형성되기 이전인 춘추 시대의 책 '관자'에 '예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또 부여가 성립되기 이전인 서기전 5세기에 대한 기록에서도 같은 명칭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예와 맥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맥으로 통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예인과 맥인은 비록 구분은 가능하지만 대개 하나로 묶어서 불러도 무방할 만큼 유사한 부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예와 맥이 같은 계통에서 출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또한 예맥은 반드시 고구려만을 지칭한 것도 아니다.'후한서' -고구려전-에는 고구려가 '원조 5년(서기 118년)에 다시 예맥과 함께 현도군을 침입하여 화려성을 공격했다.건광 원년(121년) 가을엔 궁(제 6대 태조)이 마한,예맥의 수천 기를 이끌로 현도군을 포위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이는 고구려가 예맥과 다른 독자적인 이름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즉 맥인들이 중심이 되어 건국한 고구려는 한때 예맥으로 불리다가 성장하여 고구려라는 독자적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고,고구려 주변에 남아 있던 예와 맥은 여전히 예맥으로 통칭되다가 후에 고구려의 팽창정책에 의해 완전히 고구려에 복속되면서 그 이름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부여

부여의 명칭이 최초로 보이는 곳은 '사기'의 -화식열전-인데,거기에는 "연나라는 오환과 부여에 인접해 있다."고 써어 있다.그리고 그 이전의 일을 기록한 '사기'의 '홍노전'에는 "홍노의 좌측왕과 장수는 동방 쪽에 있으며,상곡으로부터 더 나아가는 자는 예맥과 조선을 만나게 된다."고 하여 당시에는 부여라는 나라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부여는 연나라 성립시기인 서기전 4세기를 전후하여 형성되었으며,예맥족이 세운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부여는 본래 예의 땅이다."라는 '후한서'의 기록을 볼 때 부여는 예족의 땅을 차지한 것이므로 예족이 세운 국가는 아니다.따라서 부여를 세운 사람들은 맥족이라고 보

아야 한다.

부여의 위치에 대하여 '삼국지' -위지 동이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부여는 장성 북쪽에 있다.현도와의 거리가 1천 리가 되는데,남쪽으로는 고구려와 접해 있고,동쪽은 읍루와 연결되었으며,서쪽은 선비와 인접되어 있다.북쪽에는 약수가 있는데,영역이 2천 리이고 호수는 8만이다."

이 기록에 의존할 때 부여의 위치는 만리장성의 위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즉 만리장성이 요하 아래쪽까지 뻗어 있었다면 요하와 흑룡강 사이에 비정할 수 있고,만리장성이 우수,즉 난하를 걸쳐 있었다면 요서. 요동 지방을 기점으로 해서 북으로 송화강과 흑룡강까지 확대될 수 있다.그리고 전자를 기준으로 할 때 부여의 중심지는 요하 중류와 송화강 유역이 될 것이고,후자를 기준으로 하면 부여의 중심지는 요하를 기점으로 한 요서와 요동이 될 것이다.

한편 부여는 북부여와 동부여,졸본부여 등으로 구분되었다.'삼국유사'는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우고,그의 아들 해부루가 동부여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으며,졸본부여는 구려의 다른 이름으로 고구려의 전신이다.또한 북부여의 수도는 홀승골성이며,동부여의 수도는 가섭원이고,졸본부여의 수도는 졸본이다.하지만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부여는 서기전 4세기경에 성립되어 고구려 제 21대 문자명제에 의해 멸망당하는 서기 494년까지 약 800년 동안 지속되는 나라로서 그 영토는

남으로는 발해만 연안과 요서. 요동,북으로 흑룡강,서로는 대흥안령산맥,동으로는 우수리 강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 걸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부여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고구려의 부여 복속과정에서 재차 언급될 것이다).

말갈

말갈이라는 명칭은 두 글자 모두 가죽 혁자가 부수인 점으로 미루어 가죽 옷을 만들어 입는 부족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말갈은 이미 고구려 성립 이전부터 부락을 이루고 있었음을 '삼국사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수서'-말갈전-에는 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말갈은 고구려의 북쪽에 있으며,읍락마다 추장이 있으나 서로 하나로 통일되지는 못했다.무릇 7종이 있으니 첫째는 속말부라 부르며 고구려에 접해 있고,둘째는 백돌부로 속말의 북쪽에 있다.셋째 안차골부는 백돌의 동북쪽에 있고,넷째 불열부는 백돌의 동쪽에 있다.다섯째는 호실부로 불열의 동쪽에 있고,여섯째는 흑수부로 안차골의 서북쪽에 있으며,일곱째는 백산부로 속말의 동쪽에 있다.정병은 3천이 넘지 않고,흑수부가 가장 강하다.불열 이 동 지역은 모두가 돌화살촉을 사용하며 옛 숙신의 후예이다."

이 글은 말갈이 고구려의 북쪽,즉 부여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또한 말갈이 부족은 이뤘으나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다고 했으므로 이들은 부여의 일부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즉 말갈은 부여국의 변방

에 흩어져 살며 가죽옷을 해 입는 부족이었던 것이다.하지만 부여 사람들은 흰옷을 즐겨 입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말갈과 부여는 의복문화를 통하여 확연히 구분되었을 것이다.

주몽이 나라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말갈 부락을 정리하였는데,이대 정리한 말갈 부락은 졸본부여,즉 구려의 변방에 흩어져 살던 속말말갈과 백산말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당서'에서는 말갈을 '흑수말갈'과 '발해말갈'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이는 흑수말갈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말갈은 고구려 멸망 이후에 남하하여 발해만 부근에 모여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해만 부근에 모여 살던 발해말갈은 후에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 유민과 함께 발해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비류

비류는 고구려에 최초로 복속된 국가이며,복속된 이후에는 다물도로 개칭된다.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후 서기 37년에 비류를 침략하게 되는데,이때 비류의 왕은 송양이었다.즉 비류는 대대로 송씨가 다스리던 국가였다는 뜻이다.

비류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송양의 말에서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과인이 바닷가 한구석에 외따로 살았기 때문에 한번도 군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오늘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니 또한 다행한 일이 아니겠소.그러나 과인은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있소이다."

이 말에 따르면 비류는 적어도 바닷가에 있는 국가이다.또한 주몽이 "비류수에 채소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산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 내용을 참고할 때 비류는 비류수라는 강 이름에서 따온 명칭일 것이다.따라서 비류는 비류수 상류이면서 또한 바닷가에 있는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류수'라는 이름을 풀이해보면 '끓어 넘치듯이 흐르는 물'이 된다.그렇다면 바닷가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원하여 끓어 넘치듯이 세차게 흐르는 비류수는 지금의 어디인가?

'삼국사기'는 주몽이 망명하여 처음에는 비류수 가에 머물렀다고 했다.이는 비류수가 졸본과 인접한 곳임을 증명한다.또한 졸본이 난하와 요하 사이에 있었다면 비류수 역시 그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송양이 '바닷가 한구석에 외따로 살았기 때문에'라는 말을 한 것으로 봐서 비류수는 난하와 요하 사이에 있으면서 발해로 흘러드는 강이었다는 설정이 자능하다.비류국은 바로 이 강 근처에 있던 국가였던 것이다.

해인

해인은 고구려에 의하여 두 번째로 복속된 국가이다.

동명성에는 서기전 32년 10월에 오이와 부분노에게 명령하여 해인국을 정

복하는데,그 위치에 대해서는 '태백산 동남방 있는 해인국'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태백산의 위치만 확인하면 해인국의 위치는 저절로 밝혀진다.태백산에 대해서는 흔히 세 가지 설이 있다.첫 번째는 백두산을 가리킨다는 설이고,두 번째는 태산을 가리킨다는 설이다.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산 이외의 어떤 산을 가리킨다는 설이다.

이 세 설 중에서 백두산설을 취할 경우 해인국은 백두산의 동남방,즉 함경북도 일대가 된다.하지만 태산설을 취한다면 해인국은 현재 중국의 산둥성 일대에 지정된다.

단순히 현재 지명에 근거한 이 두 가지 설에 비해 세 번째 설은 좀더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삼국사기'는 금와가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그 여자가 유화 부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또 해인국은 '태백산 동남방'에 있다고 했다.따라서 우발수와 해인국은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볼 수 있다.말하자면 해인국은 우발수 근처에 형성된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해인국은 북부여와 동부여 사이에 위치한 나라로 북부여에 치우쳐 있었을 것이다.당시 북부여는 송화강에서 흑룡강 상이에 비정될 수 있으므로 해인국도 그 사이에 있어야 한다.그렇다면 태백산은 소흥안령산맥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또한 우발수는 송화강을 지칭하거나 그 지류 중 하나를 지칭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해인국은 송화강 주변의 합이빈(하

얼빈)이나 대경 지역에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세 가지 가설 중에서 세 번째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옥저

북옥저는 고구려에 의하여 세 번째로 복속된 국가이다.

옥저에 대하여 '삼국유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상고하건대 동명제 즉위 10년(서기전 28년)에는 북옥저를 멸망시켰으며, 온조왕 42년에는 남옥저의 20여 호가 신라로 귀순해 왔으며,도 혁거세 53년에는 동옥저가 와서 좋은 말을 바쳤다고 하였은즉,또 동옥저도 있는 것이다."

이 기록과 달리 '삼국사기'는 온조와 43년에 남옥저 사람들이 신라로 귀순한 것이 아니라 43명이 백제로 귀순한 것으로 쓰고 있는데,이 내용이 더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렇지 않다면 굳이 온조왕 43년이라는 것을 앞에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기록들에 따르면 옥저는 북. 동. 남옥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 중 북옥저에 대한 기록은 '후한서' -동옥저전-에 잠시 언급된다.

"또한 북옥저가 있는데,일명 치구루라 하며,남옥저에서 800여 리 떨어져 있다.그 습속은 모두 남옥저와 같다.경계의 남쪽은 읍루와 접해 있다.읍루

사람들은 배를 타고 노략질하기를 좋아하는데,북옥저는 이를 두려워하여 매년 여름에는 번번이 바위굴에 숨어 있다가 겨울이 되어 뱃길이 통하지 않게 되면 읍루로 내려와 산다."

이 기록은 북옥저가 남옥저와 800여 리 떨어져 있다고 쓰고 있는데,그렇다면 남옥저와 북옥저 사이에는 다른 나라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그런데 북옥저의 남쪽 경계가 읍루와 접해 있다고 했으므로 남옥저와 북옥저 사이에는 읍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읍루의 위치에 대하여 '후한서'는 "부여의 동북쪽 1천여 리에 있으며, 동으로 큰 바다에 접하고 남으로 북옥저와 접하며,그 북쪽 끝닿는 곳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그런데 이 기록은 같은 책의 동옥저에 대한 기록과 모순되는 점이 있다.'후한서'는 동옥저의 위치에 대하여 "동옥저는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으며,동으로 큰 바다에 접하고 북쪽에 읍루와 부여,그리고 남쪽은 예맥과 접해 있다."고 쓰고 있다.이는 읍루의 남쪽 경계가 북옥저가 아니라 동옥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이는 북옥저의 '남쪽 경계가 읍루와 접해 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읍루의 경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읍루는 동쪽으로 큰 바다에 접해 있으며,남으로는 동옥저와 접해 있고,서남으로는 부여,서북으로는 북옥저,동북으로는 끝닿는 곳을 알지 못한다.'

이 같은 설정을 바탕으로 할 때 북옥저의 위치는 흑룡강의 본류와 지류로 둘러싸이며,이는 지금의 하바로프스크 서북방에 위치한 콤소몰스크나야무레

일대에 해당한다.그리고 그 경계는 동남쪽과 북쪽은 읍루에 둘러싸이고,서남쪽은 부여에 둘러싸인다.따라서 북옥저는 사방이 흑룡강의 본류와 지류로 둘러싸인 오각형 모양의 땅이 되는 것이다.

이는 읍루 사람들의 배를 통한 침입 때문에 여름에는 굴에 들어가 살고,겨울에 뱃길이 열면 읍락으로 내려와 살았다는 기록을 정당화시킨다.북옥저를 현재 강단사학계의 주장대로 함경도와 두만강 이북 일부 지역에 설정한다면 읍루는 겨울에도 얼마든지 북옥저를 침입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한반도의 동해와 그 이북 일부 지역까지는 겨울에도 바다가 얼지 않는 까닭이다.따라서 북옥저를 현재의 함경도 일대에 설정하는 것은 '후한서'의 기록들을 정당화시킬 수 없으므로 논리적인 모순을 안게 된다.

함경도 일대에 있던 옥저라는 국가는 동옥저를 의미하며,북옥저와 남옥저는 동옥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뜻이 된다(동옥저와 남옥저에 대해서는 동옥저가 고구려에 의해 멸망당하는 제 6대 태조대에 가서 언급하기로 한다).

。동명성제 시대의 세계 약사.

동명성제 시대 중국은 서한의 제 11대 고종원제(서기전 49년~서기전 33년)와 제 12대 성제(서기전 33년~서기전 7년) 시대였다.원제는 유교를 숭상한 인물이었다.이 때문에 원제 때에는 무제 때부터 국교로 지정된 유교가 뿌리

를 내리게 된다.원제를 이어 즉위한 성제는 처음에는 이상주의에 바탕한 정치를 펼쳤으나 후기에는 여색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한다.

이 당시 서한의 북쪽에는 흉노가 강한 세력을 형성하여 동. 서로 갈라져 있었는데,서한은 동흉노와 함께 서흉노를 공격하곤 하였다.

이 무렵 서양은 로마의 제정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브루투스의 배반으로 카이사르 시대가 종결되고 카이사르의 아들 옥타비아누스를 비롯하여 안토니우스,레피두스 등에 의한 삼두정치가 실시되었다.하지만 서기전 36년에 레피두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귀속되고,다시 서기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군에 의해 안토니우스군이 대패하여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이 때문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라는 자살을 감행한다.이에 로마 의회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내리게 되고,이로써 로마는 공화정 시대를 종결하고 황제가 군림하는 제정 시대를 맞이한다.

[번 호] 27 / 46

[등록일] 97년 12월 14일 23:36

Page : 1 / 4

[등록자] LUCIATO

[제 목] [정보/호림] 신삼국사기 고구려본기 2-1

제 2대

유리명제 본기

1.아비 없는 설움을 딛고 일어선 유류와 고구려 황실의 제위다툼

주몽의 원자 유류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그 기록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주몽은 졸본으로 망명하기 전에 부여 여자 예씨와 혼례를 올린 몸이었다.

그리고 졸본으로 망명할 당시 예씨는 임신 중이었다.하지만 모친 유화 부인에게서 금와의 맏아들 대소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듣고 오이,마리,협보 등의 친구들과 함께 졸본으로 몸을 피했다.

주몽이 떠난 뒤 예씨는 아들을 낳았다.그리고 이름을 유류(또는 유리라고도 전함)라고 지었다(유류가 태어난 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주몽이 왕위에 오르기 한 해 전인 서기전 38년이나 이듬해인 서기전 37년 정도로 추정된다).

유류는 자라면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모양이다.소년

으로 성장한 유류가 어느 날 참새를 잡으려다 실수하여 물 길는 아낙의 물동이를 깨뜨린 사건이 발생했는데,그 아낙은 "아비 없이 자란 자식이라 돼 먹지 못했다."고 꾸짖는다.이 말을 들은 소년 유류는 집으로 돌아와 예씨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캐묻는다.

이에 예씨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네 아버지는 비상한 사람이었다.하지만 나라에서는 아버지의 비상함을 용납하지 않았다.그 때문에 남쪽 지방으로 도피하여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다.네 아버지가 떠나실 때 내게 '당신이 만약 아들을 낳으면,나의 유물이 칠각형의 돌 위에 있는 소나무 밑에 숨겨져 있다고 말하시오.만일 이것을 발견하면 곧 나의 아들일 것이오.'하고 말씀하셨다."

예씨에게서 이 말을 들은 유류는 그날부터 산을 헤매며 주몽이 남긴 유물을 찾아다녔다.하지만 그는 주변 산 어디에서도 칠각형의 돌을 발견하지 못했다.그 때문에 유류는 몹시 낙심하였다.그러나 그는 포기하지는 않았다.

낮이면 주변 산을 뒤흔들며 칠각형의 돌과 소나무를 찾아다녔다.하지만 항상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그날도 유류는 산을 헤매다가 몹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그리고 마루에 털썩 앉았다.그런데 그 순간 유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그것은 마치 바위 틈새에 끼인 금속성의 물건이 내는 소리 같은 것이었다.그래서 그는 몇 번에 걸쳐 같은 동작으로 마루에 힘껏 앉아보았다.그때마다 어디선가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한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한 끝에 유류는 그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냈다.그 소리는 바로 기둥과 주춧돌 사이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그 때문에 유류는 주춧돌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었고,그것이 칠각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그러자 불현듯 아버지가 남긴 말이 떠올라 기둥 밑을 조사하였다.

과연 그곳에는 아버지가 남긴 징표가 있었다.부러진 칼 조각이었다.주몽은 자신의 칼을 동강내어 징표로 삼고,나중에 그 징표를 대조하여 아들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유류가 간신히 아버지의 유물을 찾아냈을 때는 이미 많은 세월이 흐른 뒤였다.할머니 유화도 이미 죽고 없었고,음으로 양으로 예씨 모자를 보살펴주던 금와왕도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그 때문에 금와의 맏아들 대소가 동부여의 실직적인 왕으로 군림했다.

대소의 군림은 곧 예씨 모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다.그래서 유류는 옥지, 구추, 도조 등의 친구들과 의논한 후 어머니 예씨와 함께 고구려로 탈출할 것을 다짐하고,서기전 19년 4월 마침내 탈출에 성공하여 고구려 땅을 밟는다.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당시 중병에 걸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던 주몽은 아내와 아들이 찾아들자 매우 기뻐하였고,유류를 태자에 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 조정은 두 파로 나뉘게 된다.주몽의 의중을 파악하고

유류의 태자 책봉에 찬성한 유류파와 유류의 태자 책봉을 반대하고 소서노의 아들들인 비류와 온조를 지지하고 있던 비류파로 갈라졌던 것이다.

유류파의 중심인물은 주몽과 함께 망명한 오이, 마리, 협보를 비롯하여 대표적인 무장세력인 부분노와 부위염, 고구려 토착세력인 탁리, 사비, 설지 등이었고, 비류파의 중심인물은 소서노의 지지기반인 계루부 출신의 관리들과 오간, 마려 등의 종신들이었다. 하지만 이들 두 파의 대립은 유류파의 승리로 끝났다. 고구려 개국 이후 계루부는 동명성제에 의해 거의 장악당한 상태였고, 나머지 네 부족 역시 동명성제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명성제의 고향 친구들인 오이, 마리, 협보 등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도 유류파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류는 태자에 책봉되었고, 비류파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소서노와 그녀의 두 아들인 비류와 온조를 비롯하여 오간, 마려 등 10명의 신하는 자신들이 머물 곳을 찾아 남쪽으로 떠났다. 남쪽으로 떠난 그들은 백제를 세우게 된다. 이때 졸본의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나섰다. 이 때문에 민심이 이반되어 유류는 즉위 후에도 백성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급기야 도성을 옮기기에 이른다.

비류파들이 떠난 뒤, 유류는 동명성제 측근들의 보필을 받으며 지냈다. 그리고 태자 책봉 5개월 뒤인 서기전 19년 9월에 동명성제가 생을 마감함에 따라 고구려 제 2대 황제에 올랐다. 그가 바로 유리명제이다.

[번 호] 28 / 46 [등록일] 97년 12월 14일 23:36 Page : 1 / 9

[등록자] LUCIATO

[제 목] [정보/호림] 신삼국사기 고구려본기 2-2

제 2대

유리명제 본기

2. 유리명제의 정권장악 노력과 고구려의 격변

(?~서기 18년, 재위기간: 서기전 19년 9월~서기 18년 10월, 36년 1개월)

주몽의 원자 유리명제가 왕위에 오르면서 고구려조정은 한 차례 정쟁을 치른다. 조정을 장악하려는 유리명제와 이를 저지하려는 개국공신들 사이에 팽팽한 힘싸움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유리명제는 동명성제의 맏아들로 동부여 출신의 황후 예씨 소생이며, 이름은 유류 또는 유리이고, 동부여에서 서기전 38년 또는 서기전 37년경에 태어났다. 이후 장성하여 아버지를 찾아 고구려에 망명하였고, 서기전 19년 4월 태자에 책봉되었다가, 그해 9월에 동명성제가 4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자 고구려 제 2대 황제에 즉위하였다.

제위에 오른 유리명제는 즉위 이듬해인 서기전 18년 7월에 다물후 송양의 첫째 딸을 황후로 맞아들여 지지기반을 닦는다. 다물후 송양은 한때 비류국

의 왕이었고, 고구려에 복속된 이후에는 동명성제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이 된 인물이다. 그는 옛 비류국인 다물 자치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외척으로 삼는 것은 유리명제에게 여러 모로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송양의 딸은 시집 온 이듬해 10월에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유리명제는 황후 송씨의 동생인 송양의 둘째 딸을 맞아들여 황후로 삼는다. 그리

고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개국공신들과 혼인관계를 맺는다.

자기 세력이 없던 유리명제는 이와 같은 혼인관계를 통해 반대세력들을 무마시키며 점차 지지기반을 확대하였다.하지만 정권확대를 위한 이같은 온건적 태도는 재위 11년인 서기전 9년의 선비족 토벌전쟁을 계기로 좀더 공격적으로 변한다.유리명제는 지속적으로 고구려 변방으로 밀려들고 있던 선비족 토벌전쟁을 계기로 힘을 강화하여 조정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시 선비족은 자주 요수를 넘어와 부여와 고구려 변방지역을 대상으로 약탈을 일삼았다.그들은 형세가 유리하면 여지없이 밀고 들어와 노략질을 감행하고 전세가 불리하면 요서 지역의 험산지역으로 숨어버리는 일종의 게릴라 전술을 쓰고 있었다.이 때문에 고구려의 변방은 항상 불안에 휩싸여야 했다.

백성들의 불안감이 깊어지자 유리명제는 드디어 선비를 토벌하기로 결심한다.그래서 부분노에게 대군을 내주어 토벌작전을 감행한다.

토벌작전의 선봉장으로 나선 부분노는 동명성제와 함께 고구려의 영토 확

장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동명성제 6년인 서기전 32년에 오이와 함께 태백산 동남방에 있던 해인국을 정벌한 장수도 바로 그였다.그는 이 같은 많은 전쟁경험을 바탕으로 선비족을 응징할 전략을 세웠고,마침내 선비족의 항복을 받아내기에 이른다.

유리명제는 이 선비족 토벌전쟁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군주로서의 위엄을 갖추게 되었고,그 같은 무력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권장악의 기회를 노리게 된다.

이 무렵 고구려와 동부여 사이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이는 대소가 동부여의 왕이 되면서 고구려를 적대시하고 고구려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랜 소모전으로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던 대소는 유리명제 14년인 서기전 6년에 화친을 제의하고 인질의 교환을 요청하였다.이에 유리명제는 화친제의를 받아들여 태자인 만아들 도절을 보내려 하였다.그러나 강경론자들의 반발과 도절의 반대로 고구려는 인질 교환제의에 응하지 못했다.

화친제의를 거절당한 대소는 그해 11월 군사 5만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범하였다.하지만 폭설로 인하여 동사자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동부여군은 제풀에 지쳐 퇴각하고 말았다.

대소는 퇴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구려에 대한 침범을 자행했다.이 때문에 유리명제는 항상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었고,급기야 다시금 대소의 화친제의를 받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동부여와의 전쟁을 두려워하던 유리명제가 대소의 화친제의를 받아들하려 하자 강경론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하지만 유리명제는 화친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았다.이 때문에 강경론자인 탁리와 사비 등을 교시(교제에 쓸 돼지)사건을 일으켜 죽이기에 이른다.

유리명제는 교제(왕이 들판에 돼지를 바치며 천지신명께 드리는 제사)에 쓸 돼지를 놓아주고,탁리와 사비로 하여금 그 도망간 돼지를 잡아오게 한다.그런데 그들은 돼지를 잡자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칼로 다리의 힘줄을 잘라버렸다.이에 유리명제는 교제에 쓸 돼지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그들을 구덩이 속에 던져 죽였다.

서기전 1년 경신년 8월에 일어난 이 '교시사건' 이후 유리명제는 갑자기 중병을 앓기 시작했다.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무당을 불렀더니,무당은 "탁리와 사비의 귀신이 화근이 되었다."며 귀신들에게 사죄하라고 하였다.이에

유리명제는 무당의 말대로 탁리와 사비의 귀신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얼마 후 병이 나왔다.

그렇지만 유리명제에게는 또 다른 난국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듬해인 서기 원년 1월에 태자 도절이 죽어버렸던 것이다. 그 동안 부여에 대하여 강경론을 내세우며 유리명제의 화친정책을 반대하고 있던 도절이 왜 죽었는지에 관해서는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유리명제가 병상에서 일어난 시점에 그가 죽었다는 사실은 범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병상에서 일어난 유리명제는 교시사건으로 강경파의 힘이 약화되었다고 판

단하고 다시금 동부여와 화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태자 도절은 끝까지 화친을 반대하다가 죽었던 것이다. 죽음의 형태는 자살일 수도 있고, 유리명제의 명에 의한 타살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의 죽음 뒤에 유리명제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교시사건으로 탁리와 사비가 죽고, 다시 태자마저 죽자 졸본성의 백성들은 불안에 떨게 되고, 민심은 점차 유리명제에게서 등을 돌리게 된다.

유리명제는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하고 전쟁의 위험에서도 벗어나기 위해 천도를 결심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교제에 쓸 돼지를 이용한다.

서기 원년 3월 유리명제는 돼지를 놓아주고 측근인 설지에게 명하여 뒤쫓게 하였는데, 이는 겉으로는 교시를 잡아오는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진짜 목적은 새로운 도읍지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도읍지를 알아보러 떠난 설지는 얼마 뒤 궁궐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국내의 위나암이 새 도읍지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고했다. 설지의 보고를 받은 유리명제는 그해 9월에 몸소 국내에 가서 지세를 돌아본다. 그리고 위나암에 도성을 쌓게 하고, 도성이 완성되자 서기 3년 10월에 마침내 도읍을 위나암으로 옮겨갔다. 이로써 졸본성 시대는 종결되고, 위나암성 시대가 도래하였다. 유리명제는 위나암으로의 천도를 통하여 부여의 전쟁위협에서 벗어나는 한편, 정권장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위나암으로 천도한 후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유리명제는 그해 12월에는 무려 다섯 동안이나 사냥을 즐기며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그는 변방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위나암에서 오랜만에 사생활을 즐기고자 했던 것이다. 이때 개국공신인 대보, 협보 등은 유리명제에게 사냥을 그만두고 새 도읍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유리명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협보의 관직을 파면하여 관가의 농원을 관리하게 하였다. 선제 동명의 친구이자 개국공신인 협보를 한낱 관가의 농원지기로 보내버린 것은 귀양초치나 다름없었다. 이 때문에 협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고구려 땅을 벗어나 남한으로 떠나버린다(그 후 협보는 남한에서 다파라국을 세운다).

이처럼 위나암으로 옮겨간 이후의 유리명제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마저 정적으로 간주되면 가차 없이 죽여버렸다.

만아들 도절이 죽은 후 둘째 아들 해명이 태자에 책봉되었는데, 그는 천도 이후에도 졸본성에 남아 그곳의 민심을 안정시키고 있었다. 그는 힘이 세고 용감하였기에 황룡국왕이 찾아와 그의 용기를 시험하였다.

황룡왕은 해명에게 사신을 보내 단단한 활을 하나 선물하였다. 그러자 그 사신 앞에서 활을 당겨 꺾으면서 "내가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활 자체가 강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위나암성에 알려지자 유리명제는 몹시 분개하였다. 유리명제는 스스로의 힘을 자랑한 해명을 아버지를 능멸한 불효자로 규정하고 황룡왕에게 사람을 보내 해명을 죽여버리라고 했다.

해명이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는 말을 들은 유리명제는 필시 해명이 그 힘을 믿고 반역을 도모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모양이다.민심이 이반되어 천도

를 감행했는데,그 구도읍지에 머물고 있던 태자 해명은 오히려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였다.이는 유리명제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아들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였다.그러던 터에 황룡왕의 활을 꺾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물론 이 이야기는 황룡왕의 사신이 유리명제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구려의 속국이었던 황룡국은 항상 독립의 기회를 엿보았을 것이고,유리명제가 왕태자를 경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고의로 이 같은 일을 획책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내막이 어찌 됐든 유리명제는 그 활사건으로 해명을 죽일 결심을 하게 되고,해명을 죽이라는 부탁을 받은 황룡왕은 졸본으로 사신을 보내 태자를 초청한다.이에 해명의 측근들은 초청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지만 해명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황룡왕을 만난다.그러나 황룡왕은 해명의 기개를 높이 평가하여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다.

이처럼 황룡왕이 해명을 살려놓자 유리명제는 서기 9년 3월 졸본으로 사람을 보내 칼을 내주고,자결할 것을 명령한다.이에 해명은 순순히 명령에 복종하여 자살하였고,이로써 유리명제는 자신의 아들을 둘이나 죽인 잔혹한 임금이라는 백성들의 원성을 듣게 된다.

고구려에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자 기회를 엿보고 있던 동부여의 대소는 사신을 보내 고구려가 동부여를 섬기지 않으면 침략하겠다고 협박을 가한다.이에 유리명제는 동부여를 섬길 것을 맹세하는 답장을 보낸다.

그런데 그 무렵 부여에서는 내분이 일어난다.아마 대소와 그의 여섯 형제들이 치열한 정권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모양이다.이 덕분에 고구려는 전열을 가다듬고 부여의 침입에 대비할 시간을 벌게 되었다.

그리고 서기 12년에 중원의 내분을 틈타 동호와 흉노가 대거 남하하고 한에 예속되어 있던 요서의 맥족이 봉기하였다.이에 당황한 신의 왕망은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하지만 고구려가 원군요청을 거절하자 왕망은 요소 대운 전담을 시켜 고구려를 치게 한다.그러나 고구려의 반격에 밀린 한군은 대패하고,전담도 전사하고 말았다.

전담의 전사소식을 접한 왕망은 엄우를 시켜 다시금 고구려를 침략하였고,이때 엄우의 계략에 말려든 고구려 장수 연비가 죽임을 당한다.

이때부터 유리명제는 한나라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을 가했고,이 틈을 노려 부여군이 고구려를 침입해 왔다.하지만 부여군은 태자 무휼이 이끌던 수비대의 전략에 말려 전멸하고 말았다.

고구려군이 이렇게 승전을 거듭하자 유리명제는 서기 14년 8월에 오이와 마리에게 군사 2만을 내주고 고구려 서쪽의 양맥을 치게 하여 아우르고,다시 진군하여 한나라의 고구려현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고구려현은 한의 동방정책을 담당하던 요서의 전초기지였기 때문에 고구려현을 차지한 것은 한의 동방정책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획기적인 성과였다.

이렇듯 만년에 과감한 영토확장전쟁에 몰두하던 유리명제는 서기 18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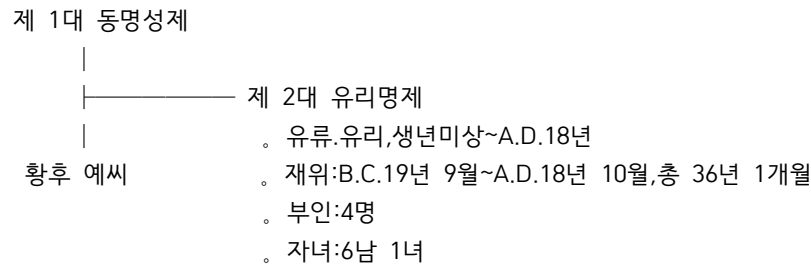
에 넷째 아들 여진이 물에 빠져 죽는 불행한 사건을 경험한다.그리고 그해 7월에 병약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휴양처인 두곡에 행차하여 휴양을 하였다.하지만 그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재위 36년 1개월 만인 그해 10월에

두곡의 이궁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이때 그의 나이는 대략 57세 가량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능은 두곡 동원에 마련되었으며,묘호는 유리명제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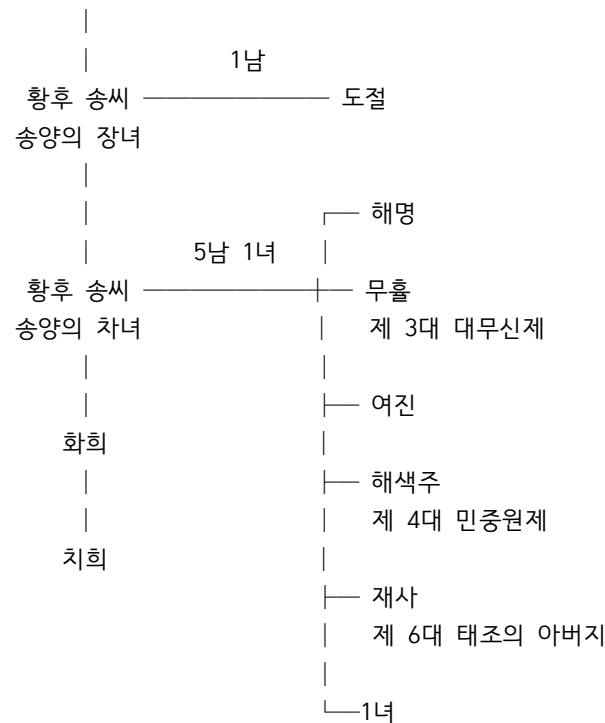
제 2대
유리명제 본기

3.유리명제의 가족들

제 2대 유리명제 가계도



쓰기(W) 조회수검색(DS) 그림보기(SEE) 페이지이동(PG) 다음(엔터) 연속(NS) 기타(Z)
선택 >



유리명제는 황후 송씨를 비롯한 4명의 부인에게서 6남 1녀를 얻었다.이 부인들 중 송양의 장녀 황후 송씨는 장남 도절을 낳은 듯하며,송양의 차녀 황후 송씨는 해명. 대무신제. 민중원제. 여진. 재사 등 5남 1녀를 낳은 것으로 판단된다.유리명제는 사서에 기록된 부인 이외에도 여러 명의 부인들을 거느렸을 것으로 판단되는 까닭에 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자식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여기에서는 사서에 기록된 인물들에 한정하여 가족사를 정리한다.

이들 중에서 대무신제와 민중원제는 각 그 본기에서 다루도록 하고,이 밖에 이름이 기록된 나머지 가족들의 삶을 간단하게 언급한다.

송양의 장녀 황후 송씨(?~서기전 17년)

유리명제의 제 1황후 송씨는 유리명제 즉위 이듬해인 서기전 18년 7월에 황후로 간택되어 입궁하였다.

그녀는 비류 지역의 유력가 송양의 장녀이다.송양은 한때 비류강 근처에 있던 비류국의 왕이었으나,동명성제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고구려의 신하가 되었다.비류국은 고구려에 복속된 뒤에 다물도로 개칭되었으므로,그는 다물후에 봉작되어 다물도를 다스리고 있었다(또한 송양을 5부족 중 하나인

소노부의 부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유리명제가 즉위 후 다물후 송양의 딸을 황후로 맞아들인 것은 다소 정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비록 아버지 주몽의 후광으로 개국공신들의 보필을 받고 있긴 했으나 실질적인 힘이 없던 유리명제는 송양의 딸을 아내로 취함으로써 다물도의 군사력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삼으려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유리명제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여 황후로 입궁한 제 1황후 송씨는 생명이 길지 못했다.그녀는 입궁한 지 1년 3개월 만인 서기전 17년 10월에 젊은 나이로 요절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사망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사망시점이 결혼 1년 3개월 만인 점을 고려할 때 아이를 낳다 죽은 것으로 보이며,이때 태어난 아이가 장남 도절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녀의 능과 시호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송양의 차녀 황후 송씨(생몰년 미상)

제 2황후 송씨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하지만 유리명제의 셋째 아들 대무신제의 어머니를 다물국왕 송양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그런데 대무신제는 서기 4년(유리명제 23년)에 태어났고,황후 송씨는 그 20년 전인 서기전 17년에 사망하였다.따라서 서기전 17년에 사망한 황후 송씨는 대무신제의 어머니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대무신제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그녀 역시 송양의 딸이라면 유리명제는 송양에게서 2명의 딸을 맞아들였다는 결론이 나온다.당시 풍속으로는 자매가 동시에 한 사람에게 시집 가는 일도 허다했으므로 이 같은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그런데 고구려사를 기록한 사람들이나 '삼국사기'의 편찬자들이 이 두 사람의 송씨를 1명으로 처리한 듯하다.

따라서 유리명제의 제 1황후 송씨가 아닌 그녀의 여동생이자 대무신제의

어머니 송씨를 여기에서는 제 2황후 송씨로 기록한다.

제 2황후 송씨가 유리명제에게 시집 온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제 1황후 송씨와 함께 입궁했을 수도 있고,그녀가 사망한 직후나 아니면 수년뒤에 입궁했을 수도 있다.그런데 둘째 아들 해명이 서기전 12년에 태어난 것을 감안할 때 적어도 제 1황후 송씨가 사망한 때로부터 4년이 지난 서기전 13년 이전에는 입궁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제 2황후 송씨의 입궁시기는 제 1황후 송씨의 사망 직후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입궁 후 그녀는 언니의 아들 도절을 키우며 해명,무휼(제 3대 대무신제),여진,해색주(제 4대 민중원제),재사(제 6대 태조의 아버지) 등 5남과 우씨의 아내가 된 1녀 등을 낳았다.

그녀가 언제 죽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능에 대한 기록도 없다.

화희(생몰년 미상)

제 1황후 송씨가 죽은 해인 서기전 17년 10월에 유리명제는 2명의 후궁을 맞아들인다.화희는 그 중의 한 여자로 골천 출신이다.

이 무렵 유리명제는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유력자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흔적이 보이는데,화희는 그 유력자 중의 한 집안에서 시집온 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시 고구려의 행정단위는 대개 곡,천 등으로 부렸던 것을 감안할 때 골천은 그 자치구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부족 중 골천의 유력자인 화희의 가문은 당시의 유력자들 중에서도 꽤나 힘이 있었던 모양이다.이는 화희가 유리명제의 애첩인 치희를 내쫓아버리기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사실에서 확인된다.

유리명제는 화희 외에 한인 출신의 치희를 맞아들였는데,이 때문에 화희와 치희 간에 다툼이 잦았던 모양이다.그래서 유리명제는 양곡에 동궁과 서궁을 지어 두 여자를 따로 거처하게 하였다.그런데 어느 날 유리명제가 사냥을 떠난 사이에 화희와 치희 간에는 욕설이 오가는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다.이 말다툼 중에 화희는 치희는 향하여 다음과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네년은 한인의 집에 살던 비첩인 주제에 어찌 이토록 무례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듣고 치희는 분통을 터뜨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버렸다.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유리명제는 말을 타고 치희를 뒤쫓아갔으나 치희는 돌아오지 않았다.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리명제가 지었다는 시가 '황조가'이다.

이렇듯 화희와 치희의 싸움장면을 근거로 할 때 화희는 분명 유력자 집안 출신임이 분명하다.하지만 화희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전부이다.그녀가 자식을 낳았다는 기록도 없고,어떻게 죽었다는 기록도 없다.

치희(생몰년 미상)

치희는 제 1황후 송씨가 죽은 해인 서기전 17년 10월에 화희와 거의 동시에 입궁한 여자이다.그녀는 한나라 사람의 딸로서 유리명제의 결혼정책과는 무관하게 입궁한 것으로 보인다.

화희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당시 고구려 사람들은 한나라 사람들을 무척 천하게 여겼던 모양이다.하긴 자기 나라를 떠난 망명인에게 좋은 대접을 했을 까닭도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 사람들로부터 천한 대접을 받고 있던 한인의 딸이 후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그녀가 남달리 미색이지 않고는 불가

능한 일이다.말하자면 그녀는 미색으로 소문이 났고,유리명제는 그 소문을 듣고 그녀를 후궁으로 취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따라서 치희는 화희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유리명제는 화희보다는 치희를 총애했던 모양이다.화희는 그 점을 참을 수 없어서 그녀에게 욕설을 퍼부어 내쫓아버렸을 것이다.

화희에게서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친정으로 돌아가버린 치희는 돌아오지 않았고,그녀를 뒤쫓아갔던 유리명제는 허탈한 마음으로 환궁하였다.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나무 밑에서 휴식을 하며 자신의 씁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시로 읊었다.

편편황조 펄펄 나는 꾀꼬리는
자웅상의 암수 서로 정다운데
염아지독 외로운 이 내 몸은
수기여귀 뉘와 함께 돌아갈꼬?

흔히 '황조가'로 불리는 이 시가 치희에 대한 마지막 기록인 셈이다.그 후 그녀가 돌아왔는지,아니면 몇 명의 자식을 낳았는지,또는 언제 죽었는지 등에 관한 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도절(서기전 17년~서기 원년)

도절은 유리명제의 맏아들이며,제 1황후 송씨의 소생인 듯하다.그리고 그를 송씨의 소생으로 볼 때 서기전 17년에 태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에 도절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서기전 6년 1월에 부여왕 대소가 사신을 보내 화친조약을 체결하고 인질을 교환하자고 제의한 기록에서이다.이때 도절은 이미 태자에 책봉되어 있었으나 12세의 어린 소년에 불과했다.

부여가 인질을 교환하자고 하자 유리명제는 이를 승낙한다.유리명제는 당

시 부여의 강성함을 겁내고 있었고,한편으론 전쟁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래서 부여의 화친제의를 받아들여 하루빨리 전쟁위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이 같은 유리명제의 생각에 따라 도절은 인질이 되어 부여로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하지만 도절은 부여로 떠나기를 두려워했다.또한 부여에 대한 강경론을 고수하는 신하들이 많아 유리명제는 부여와의 화친약조를 지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해 11월에 부여는 5만의 군사로 고구려를 쳐들어온다.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폭설이 내려 부여 군사는 퇴각한다.그렇지만 부여의 전쟁위협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유리명제는 어쨌든 부여와 화친을 맺어 전쟁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했고,그래서 지속적으로 화친의도를 드러낸다.그러나 그때마다 강경론자들의 반대 에 부딪혀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강경론자의 대표자는 탁리와 사비였다.유리명제는 이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교사사건'을 일으킨다.

유리명제는 그들을 제거할 계락을 세우고 교제에 쓸 돼지를 놓아주고는 그들로 하여금 도망간 돼지를 잡아오게 하였다.이에 그들이 돼지를 잡아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의 힘줄을 잘라 가지고 오자 교제에 쓸 신성한 제물에 상처를 입혔다는 죄목을 씌워 그들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해서 강경론자들을 누른 유리명제는 다시금 부여와의 화친을 서두

른다.그런데 이번에는 18세의 청년으로 성장해 있던 도절이 강경한 자세로 유리명제의 화친정책에 제동을 건다.그는 부여에 인질로 갈 경우 십중팔구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그러나 유리명제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그래서 도절은 서기 원년 1월 죽음을 택하게 된다.

이 죽음이 스스로가 택한 자살인지,아니면 유리명제의 명령에 의한 자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하지만 당시 정황으로 봐서 스스로 자살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즉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고,부여에 인질로 갈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물리자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뜻이다.'도읍을 갈라놓았다'는 뜻의 '도절'이라는 그의 이름에서도 이 같은 자살의 흔적이 엿보인다.

해명(서기전 12년~서기 9년)

해명은 유리명제의 둘째 아들이며,제 2황후 송씨 소생으로 서기 4년 16세의 나이로 태자에 책봉되었다.그의 태자 책봉 한 해 전인 서기 3년에 유리명제는 도읍을 졸본에서 위나암으로 옮겼는데,이때 해명은 졸본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말하자면 고구려 조정은 당시 일종의 분조(특별한 상황에서 임금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다.따라서 졸본에도 많은 수의 신하들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해명은 힘이 세고 용맹이 넘치는 인물이었다.이 소문을 들은 황룡국의 왕이 해명을 시험하기 위해 튼튼한 활 하나를 선물로 보낸다.그런데 해명은 황룡국 사신이 보는 앞에서 활을 힘껏 당겨 꺾어버렸다.

서기 8년 1월,해명의 나이 20세 때 일어난 이 사건은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온다.해명이 황룡국왕의 선물인 활을 사신이 보는 앞에서 꺾어버렸다는 말을 들은 유리명제는 "해명은 자식으로서 효성이 없으니,나를 위하여 그놈을 죽여주소."하고 황룡국 왕에게 말한다.

유리명제는 자신에게 등 돌린 졸본의 민심 때문에 천도를 결심했는데,해명은 오히려 그곳에서 강한 세력을 형성하며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이 때문에 유리명제는 자신의 친아들인 해명을 시기하게 되었고,한편으론 해명이 반란을 도모할까봐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던 듯하다.이런 상황에서 해명이 활을 부러뜨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선물을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부러뜨린 것은 가히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다.심하면 전쟁도 불사할 만한 외교상의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었다.그런데도 해명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따라서 해명의 이 같은 행동을 전해들은 유리명제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하지만 그 일이 아들을 죽일 만큼 대단한 일은 되지 못했다.그런데도 유리명제는 황룡왕에게 밀서를 내려 해명을 죽여버리라는 부탁을 한다.이는 이미 그 사건이 있기 오래 전부터 유리명제가 해명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말하자면 유리명제는 분조 형태를 더 오래 유지하다가가는 자칫 해명에게 왕위를 찬탈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유리명제의 밀서를 받은 황룡왕은 활을 부러뜨린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가량 되었을 무렵인 서기 8년 3월에 졸본으로 사신을 보내 해명태자를 초청한다.해명이 이 초청에 응하려고 하자 근신들이 강하게 만류하며 말했다.

"이웃 나라에서 이유 없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해명이 대답했다.

"하늘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황룡왕 따위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해명은 이 같은 결연한 마음으로 황룡국으로 떠났다.

해명을 만난 황룡왕은 처음엔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고구려 조정과의 마찰을 우려한 탓인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이듬해 3월 유리명제는 자신이 직접 해명에게 자살을 명령하게 된다.

"내가 도읍을 옮긴 것은 백성들을 안정시켜 국가의 위업을 다지려는 것인데,네가 나를 따르지 않고 힘이 센 것을 믿고 이웃 나라와 원한을 맺었으니,이것이 자식 된 도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제 네게 칼을 내리노니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결하도록 하라."

유리명제의 이 같은 자결명령을 받은 해명은 즉시 자결할 태세를 갖추었다.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근신 중 한 사람이 그를 말리며 말했다.

"폐하의 말아들이 이미 죽었으므로 태자께서는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폐하의 사자가 한 번 와서 말한다 하여 자결한다면,폐하의 지시가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해명은 그의 만류를 뿌리치며 말했다.

"지난 번에 황룡왕이 강한 활을 보냈기에,나는 그들이 우리를 업신여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일부러 활을 잡아당겨 꺾음으로써 답한 것인데,뜻밖에 마마께 건책을 당하게 되었소.아바마마께서 불효의 명목으로 내게 칼을 내려 자결을 명하셨으니,어떻게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소?"

이 같은 말을 남기고 해명은 여진의 동원 벌판으로 가서 땅에 창을 꽂아놓고,말을 타고 힘껏 달려 그 창에 몸을 날려 자결하였다.이때 그의 나이 21세였다.

그가 죽자 유리명제는 태자의 예로 동원에 장사토록 하고,그곳에 사당을 세웠다.그리고 해명이 창에 찔려 죽은 그곳을 '창원'이라고 하였다.

여진(?~서기 18년)

여진은 유리명제의 넷째 아들이다.언제 태어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서기 18년 4월에 물에 빠져 죽었다는 기록만 남아 있다.

그가 익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리명제는 슬퍼하며 사람들을 풀어 시체를 찾게 하였다.하지만 시체는 한동안 발견되지 않다가,수일이 지나서야 비류수 사람 제수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그 후 여진은 왕골령에 묻혔으며,그의 시체를 찾은 제수에게는 금 10근과 밭 10경이 상으로 내려졌다.

이 여진의 죽음은 유리명제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모양이다.여진이 죽은 후 유리명제는 병상에 드러누웠고,그해 10월에 사망한다.

재사(생물년 미상)

재사는 유리명제의 여섯째 아들로 제 6대 태조의 아버지이다.언제 태어났는지 또는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으며,다만 태조가 제위에 오르자 고추가(조선의 대원군이나 부원군에 해당함)에 올라 있었다는 기록만 남아 있다.

제 2대

유리명제 본기

4.새로운 도읍지 위나암과 그 위치에 관한 가설들

유리명제는 서기 3년(유리명제 22년)에 도읍을 졸본에서 국내의 위나암으로 옮긴다.이때 유리명제가 도읍을 졸본에서 국내의 위나암으로 옮긴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첫째,졸본은 구려의 옛 수도였기 때문에 구려 시대의 정서가 강하게 남아 있는 곳이었다.그래서 구려의 중심세력인 5부족의 힘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게다가 소서노와 그의 아들들인 비류, 온조에 대한 지지세력이 많은 곳이기도 했다.그 때문에 유리명제는 졸본 백성들의 민심을 사로잡을 수 없었다.

둘째,졸본은 변방이 가까워 적의 침입이 용이한 곳이었다.특히 부여와 아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항상 부여의 전쟁위협에 시달려야만 했다.

셋째,졸본은 자기 손으로 큰아들 도절을 죽게 한 곳이었다.이 때문에 졸본

의 민심이 유리왕을 등졌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유리명제는 졸본이 안정된 곳이 못 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부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국내의 위나암으로 천도했다.

새로운 도읍지로 위나암을 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설지의 보고 내용에서도 재확인된다.

"제가 돼지를 따라 국내 위나암에 갔는데,그곳 자연이 준험하고 토양이 오곡을 재배하기에 적합하며,또한 산짐승과 물고기 등 산물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왕께서 그곳으로 도읍을 옮긴다면 백성들의 복리가 무궁할 뿐 아니라 전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설지의 이 같은 말을 들은 유리명제는 그해(서기 2년) 9월에 자신이 직접 위나암의 지세를 살피고 돌아온다.그리고 설지의 말대로 새 도읍지로 적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천도를 서두른다.

이 이야기는 유리명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즉 졸본성은 변방에서 가까워 항상 불안한 데 비해 위나암성은 부여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나라로부터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뜻이 된다.다시 말해서 졸본과 위나암은 거리상으로 비교적 먼 곳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위나암은 도대체 어디였을까? 졸본을 요동 지역으로 비정할 때 위나암은 요동에서 한반도 쪽으로 깊숙히 들어온 지역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그래서 흔히들 이 위나암성이 중국 길림성 집안현 지역에 있었을 것

이라고 추측하고 있다.이는 집안현에서 광개토제 능비를 비롯한 많은 고구려 유물과 능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인 듯하다.

집안현에는 현재 고구려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진 집안현성(통구성)이 있는데,평지에 건설된 이 성의 규모는 동쪽 벽이 554.5미터,서벽 664.6미터,남벽 751.5미터,북벽 715.2미터로 총 2,686미터에 달한다.이 밖에도 집안현성 서북쪽으로 2.5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총길이 6,951미터에 이르는

산성이 있다. 많은 학자들이 집안현성을 국내성이라고 하고 산성자산성으로 불리는 이 산성을 위나암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산성을 서기 209년에 제 10대 산상제가 새로운 도읍지로 정하게 되는 환도성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산성 안에는 궁궐터로 보이는 큰 집터와 5개의 연못, 샘, 망대 등이 있다.

이 성에서 약 65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3개의 좁은 협곡지대를 막아만든 관마장산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작은 석성이 있는데, 이를 대천초소라고 한다. 또 그 부근에는 망파령산성과 패왕조산성이 있는데, 이성들은 집안현성으로 가는 통로를 차단하고 있다.

이처럼 집안에는 위나암성의 흔적으로 보이는 많은 유물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유물들만으로 무조건 그곳을 위나암성터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발상이다. 일부 학자들은 집안이 고구려와 같은 대국의 수도가 들어설 곳이 못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리명제 37년에 물에 빠져 죽은 왕자 여진을 비류수 사람이 건졌다는 '삼

국사기'의 기록은 이들의 반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말하자면 위나암성은 비류수 근처에 있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 주장이 맞다면 위나암성은 다물도 근처여야 한다. 그러나 당시에 여진이 위나암성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위나암성을 비류수 근처에만 한정시키는 것도 다소 무리가 따르는 발상이다.

이 두 주장 이외에도 환인 지방의 오녀산성을 위나암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이 지역에서 산성터를 비롯한 고분군이 대거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집안설과 마찬가지로 고고학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오녀산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명성제 본기 '첫 도읍지' 줄본의 위치'편 참조).

이처럼 위나암성의 위치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했다. 선불리 그 위치를 확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가설을 세우고 향후 이에 대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번 호] 31 / 46

[등록일] 97년 12월 14일 23:39

Page : 1 / 5

[등록자] LUCIATO

[제 목] [정보/호림] 신삼국사기 고구려본기 2-5

제 2대

유리명제 본기

5. 유리명제 시대의 주변 국가들

선비

유리명제 11년(서기전 9년) 고구려는 노략질을 일삼고 있던 선비를 정벌해 속국을 만든다.

선비는 원래 사르모론 강 유역에 분포해 있던 동호족의 지파로서 유목민이다. 이들은 요서 지역 및 대흥안령산맥, 소흥안령산맥, 요동 등 넓은 곳에 분포해 있었으며 유리명제 당시에는 나라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선비란 명칭은 최초로 '초사'-대초-에 보이는데 "가는 허리 빼어난 목덜미, 마치 선비 같아라."하는 구절로 보아 어떤 민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학식이 뛰어나고 세상 이치에 밝아 그 품성이 고고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였다.

또 '후한서'-오환선비전-에는 "선비는 동호의 지파이다.따로이 선비산에

의지하여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이는 선비라는 명칭이 선비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이를 '초사'-대초-의 기록과 연결해보면 선비산은 도를 닦는 고고한 사람들이 사는 산을 일컫는 것이고,선비족은 그 산을 자신들의 출원지로 보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선비'라는 명칭에는 민족적 자부심이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명칭을 표방하고 나선 선비족에 대한 기록은 주나라 초의 일들을 다루고 있는 '국어'-진어-에도 나타나고 있는데,거기에서는 "선비는 동이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흔히 동호와 호맥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이를 근거로 할 때 선비족이 동이족의 한 부류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 아닐 것이다.

유리명제 당시만 하더라도 선비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다.인구도 적었으며,힘도 하나로 결집되지 못했다.하지만 서기 2세기가 되면 선비족의 힘은 강성해진다.이 시기의 선비족에는 흉노와 탁발,정령,오환,한족 등이 일부 포함되어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양맥

유리명제 33년(서기 14년)에 유리명제는 오이와 마리에게 명령하여 군사 2만으로 양맥을 치게 해 멸망시키고,진군하여 한나라의 고구려현을 점령한다. '삼국사기'는 이 고구려현을 현도군에 속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 멸망당한 양맥은 맥족이 세운 국가 중 하나일 것이다.그리고 양맥을

멸망시킨 후 진군하여 고구려현을 점령했다는 것은 양맥과 고구려현이 인접해 있었다는 뜻이 된다.따라서 당시 고구려현은 비록 한에 속해 있었지만 그 백성들은 맥족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고구려가 양맥을 무너뜨린 당시의 정세를 살펴보면,한을 무너뜨린 왕망이 고구려를 침입했다가 패배하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고구려 장수 연비를 쫓아내어 죽임으로써 고구려와 왕망의 신 사이에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던 때이다.따라서 고구려가 양맥과 고구려현을 점령한 것은 왕망의 신을 치기 위한 전초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말하자면 양맥과 고구려현은 한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한의 동방정책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다.이에 고구려는 양맥과 고구려현을 점령하여 왕망의 동방정책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당시 왕망의 세력은 그 영향력을 요서까지밖에 미치지 못했다.요동에는 고구려와 부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요수를 넘지 못했던 것이다.그러다가 영토확장을 노리고 있던 한의 왕망이 요동의 지리에 밝은 고구려현의 맥족과 양맥을 앞세워 요동을 넘보기 시작했고,고구려는 이 같은 한의 침략정책에 맞서 고구려현과 양맥을 점령해버렸던 것이다.

따라서 양맥과 고구려현의 위치는 요수에 인접한 요서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그들이 요동의 지리에 밝았던 것으로 보아 요수를 쉽게 건널 수 있는 상류 쪽에 위치해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처럼 요수의 상류에 위치하던 고구려현이 현도군에 속했다는 것은 현도

군 역시 요서 지역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황룡국

황룡국은 '삼국사기' 유리명왕 27년(서기 8년)과 28년(서기 9년)에 등장하는 나라 이름이다.이 황룡국왕이 선물한 활을 유리명제의 둘째 아들 해명이 꺾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여 고구려 조정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던 사실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황룡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동명성왕 3년(서기전 35년) 3월의 "황룡이 골령에서 나타났다."는 기사이다.이때의 황룡을 황룡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면 황룡국은 서기전 35년에 처음으로 골령에 세워진 셈이다.

하지만 이 나라에 대하여 고구려가 응징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황룡국은 고구려에 예속된 자그마한 속국이었을 것이다.황룡국왕이 유리명제의 청을 받는 입장이고,또 고구려의 태자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 처지였던 것도 이를 증명한다.더구나 황룡국왕이 선물한 활을 고구려 태자 해명이 부러뜨린 것을 보아도 황룡국은 고구려에 비해 아주 약소한 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황룡국이 있던 골령은 해명이 머물던 졸본과 멀지 않은 곳이었을 것이다. 왜냐 하면 황룡국왕이 선물을 유리명제에게 바치지 않고 해명에게 바쳤다는 것은 해명이 머물던 졸본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졸본을

중심으로 영토확장에 힘을 기울이던 동명성왕 3년에 황룡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도 역시 이를 증명한다.

。 유리명제 시대의 세계 역사.

유리명제 시대 중국은 전한 말기와 왕망의 신나라 시대에 해당한다.외척 왕망이 한의 정권을 장악하여 정사를 좌지우지하다가 결국 한을 멸망시키고 신을 세우는데,왕망은 동방과 북방으로 팽창정책을 감행하여 흉노를 격파하는 등 성공을 거두는 듯하다가 내부적인 한계와 고구려의 반격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한편,서양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고,티베리우스 황제가 즉위하여 노예해방령을 선포한다.이 시기에 로마에는 게르만족이 밀려들어 로마의 변방을 압박한다.

[번 호] 32 / 46

[등록일] 97년 12월 14일 23:40

Page : 1 / 4

[등록자] LUCIATO

[제 목] [정보/호림] 신삼국사기 고구려본기 3-1

제 3대

대무신제 본기

1.신동 무휼의 성장

유리명제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첫째 도절은 유리명제와의 갈등으로 죽고,둘째 해명은 황룡왕이 선물한 활을 부러뜨린 사건으로 유리명제의 명에 따라 자살하였다.이에 셋째 아들 무휼이 제위에 오르게 된다.

무휼은 다물국왕 송양의 딸 송씨의 소생으로 기록되어 있다.하지만 유리명제의 첫 번째 황후였던 송양의 딸 송씨는 유리명제 3년(서기전 17년) 10월,

입궁 1년 3개월 만에 죽었다.따라서 무휼의 어머니 송씨는 서기전 18년(유리명제 2년) 7월에 유리명제에게 시집 온 송씨가 아니다.즉 무휼의 어머니 송씨는 송양의 또 다른 딸이라는 것이다('유리명제의 가족들'편 참조).

이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휼의 어머니 송씨를 송양의 차녀로 기록하고,유리명제의 제 2황후로 서술했다.그리고 무휼을 유리명제의 셋째 아들이자 제 2황후 송씨 소생으로 판단한 것이다.

무휼은 어릴 때부터 매우 총명했던 모양이다.'삼국사기' 유리명왕 28년(서기 9년) 8월의 기사는 이러한 무휼의 총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을 8월,부여왕 대소의 사신이 화서 왕을 꾸짖으며 "우리 선왕이 그대의 선왕 동명왕과 서로 의종게 지냈다.그런데 이제 우리 신하들을 이곳으로 도망하게 하여 유인하는 것은 백성을 놀려 나라를 강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던가.나라에는 대국과 소국이 있고,사람에게는 아이와 어른이 있으니,아가 어른을 섬기는 것이 순리이듯이 소국은 대국을 섬기는 것이 예법이다.이제 왕이 예절과 순리로서 우리를 섬기고자 한다면 하늘의 도움으로 나라의 운명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나,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직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하고 말했다.

이에 왕은 자위하며 말하기를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백성과 군대가 약하므로 치욕을 참고 굴복하여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형세에 합치된다."고 하였다.그리고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여 "과인이 바다 한구석에 외따로 살아온 까닭에 미처 예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이제 대왕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어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회신하였다.

이때,왕의 아들 무휼은 나이가 아직 어렸다.그는 왕이 부여에 회신을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직접 부여 사신을 찾아가 말했다."우리 선조는 신령의 자손으로 현명하고 재주가 많았다.그런데 대왕이 질투하고 모해하여 부왕에게 참소하는 바람에 말이나 기르는 직위를 부여받아 어려움을 당했다.이

때문에 불안을 느껴 탈출하였던 것이다.이제 대왕이 전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오직 군사가 많은 것을 믿고 우리 나라를 멸시하고 있으니 사신은 돌아가서 대왕에게 '이곳에 알을 쌓아놓았으니 만약 대왕이 그 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신하와 장수의 예로 섬길 것이요,그렇지 않으면 섬기지 못하겠다.'고 전하라."하였다.

부여왕이 이 말을 듣고 여러 사람에게 그 뜻을 두루 물었다.그 뜻을 알아차린 한 노파가 "알을 쌓아놓는 자는 위태로울 것이요,쌓아놓은 알을 무너뜨리지 않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고 하였다.노파의 말은 곧 왕은 자기의 위태로움은 알지 못하고 남이 와서 굴복하기를 강요하고 있으니,이는 위기를 피하여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무휼은 이때 불과 6세의 어린아이에게 불과했다.그런데 어른들로 해석하기 힘든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이는 물론 무휼의 총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소 과장한 내용일 수도 있다.그렇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기록은 아닐 것이다.혹 누군가가 무휼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주고,무휼은 단지 전달만 했다고 하더라도 6세의 어린아이가 그 같은 내용을 말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6세 때부터 신동으로 불릴 만큼 총명함을 드러내던 무휼은 불과 10세 되던 해인 유리명제 32년(서기 13년) 11월에 고구려를 침략한 부여군을

방어했다는 기록이 있다.이때 무휼은 적을 산골 깊숙히 끌어들여 골짜기에 적을 가두고 기습전을 펼치는 계책을 내놓았다고 한다.그리고 이듬해 11세 되던 해에는 태자에 책봉되어 유리명제를 대신해 군사와 국정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고 한다.

이 같은 기록을 증명하기라도 하듯,4년 뒤인 서기 18년 10월에 무휼은 유리명제의 뒤를 이어 15세의 어린 나이로 제위에 올라 과감한 팽창정책을 감행하게 된다.

[번 호] 33 / 46

[등록일] 97년 12월 14일 23:40

Page : 1 / 5

[등록자] LUCIATO

[제 목] [정보/호림] 신삼국사기 고구려본기 3-2

제 3대

대무신제 본기

2.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대무신제의 팽창정책

(서기 4년~44년,재위기간:서기 18년 10월~44년 10월,26년)

한나라에서 왕망이 왕위를 찬탈한 이후 중원은 왕망군과 농민군의 전쟁에 휩싸인다.이에 따라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고 ,고구려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영토확장을 위한 정복전쟁에 나선다.하지만 후한의 성립으로 고구려의 대대적인 팽창정책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무신제는 유리명제의 셋째 아들이며,다물국왕 송양왕의 차녀 제 2황후 송씨 소생이다.서기 4년에 태어났으며,이름은 무휼이다.그는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불릴 만큼 총명하였고,유리명제 33년(서기 14년) 정월에 11세의 나이로 태자에 책봉되었다.그리고 서기 18년 10월에 유리명제가 생을 마감함에 따라 고구려 제 3대 황제에 올랐다.

대무신제가 제위할 무렵 왕망의 신나라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부

패한 정권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왕망 정권에 반기를 든 것이다.그 대표적인 예가 산동 지방의 변승이 일으킨 '적미의 난'과 녹림산에서 왕광과 왕봉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녹림의 난'이었다('적미의 난'은 반란군이 적군을 식별하기 위해 눈썹을 붉게 물들이고 자신들을 적미병이라고 부른 데서 기인하였다).

이들 봉기세력은 국가존립의 토대가 되는 농민들이었고,이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한 왕조의 유씨 일가들은 한의 재건을 꿈꾸기에 이른다.

이러한 혼란기를 틈타 대무신제는 대대적인 팽창정책을 감행한다.대륙의 맹주였던 한나라의 붕괴와 한나라를 붕괴시킨 왕망 정권의 몰락은 곧 북방의 맹주를 자처하던 고구려와 부여에게 영토확장의 기회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팽창정책의 속내를 먼저 드러낸 측은 부여였다.서기 20년(대무신제 3년)10월 부여왕 대소는 몸통이 두 개인데 머리는 하나뿐인 붉은 까마귀를 고구려에 보내며 사신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까마귀는 검은 법인데,이제 빛이 변하여 붉게 되었고,또한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둘이니,이는 두 나라가 병합될 징조이다."

대소는 사신을 통해 이 말을 전하면서 부여가 고구려를 합병하겠다는 암묵

적인 선전포고를 한다.이에 대무신제는 까마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대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다.

"검은색은 북방의 색인데,이제 변하여 남방의 색이 되었다.또한 붉은 까마

귀는 상서로운 것이다.그런데 그대가 이것을 얻었으나 가지지 못하고 내게 보냈으니 양국의 존망은 알 길이 없구나."

사신으로부터 이러한 해석을 전해 들은 대소는 후회를 거듭하였고,그런 가운데 대무신제는 부여 정벌을 준비하여 서기 21년 12월에 선제공격을 감행한다.정벌길에 오른 대무신제는 9척 장신 괴유를 장수로 맞아들였는데,이듬해 2월 그는 부여왕 대소의 목을 베게 된다.

대소의 죽음은 부여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다준다.왕을 잃은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왕위다툼에서 밀려난 대소의 막내동생은 부여를 탈출하여 압록곡 부근에 갈사부여를 세운다.또한 그해 7월에는 대소의 사촌동생이 백성 1만여 명을 데리고 고구려에 귀순해 온다.

이 무렵 중원에서는 한왕조의 후예인 유연과 유수 형제가 한의 재건을 맹세하고 신의 군대와 격돌하였다.그리고 이듬해인 서기 23년에 마침내 왕망을 제거하였고,2년 뒤인 서기 25년에 유연의 동생 유수가 한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그가 바로 동한(후한)의 광무제다.

이처럼 중원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고구려는 안으로 관제를 정비하는 한편,바깥으로 꾸준히 팽창정책을 지속하여 서기 26년 10월에는 개마국을 복속시키고,같은 해 12월에는 구다국을 복속시켰다.이때 대무신제는 자신이 직접 정벌전쟁에 나서 개마국왕을 죽이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팽창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을 무렵,유수는 한의 요동 태수를 앞세워 고구려를 침략한다.서기 28년 7월 한의 요동 태수가 100만의 군사를 이

끌로 위나암을 향해 밀려들자,고구려 조정은 수비책을 세워 수성전에 돌입하였다.하지만 한의 요동군은 위나암성을 에워싸고 장기전 태세를 갖췄고,이에 당황한 고구려군은 난처한 기색을 드러냈다.이때 좌보로 있던 재상을 두지는 적군이 암벽성인 위나암성 안에 물이 고갈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연못에서 잉어를 잡아 수초로 싸서 적장에게 보낸다.그러자 적장은 성안에 물이 있으니 단시일내에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물러간다.

이른바 을두지의 '잉어계책' 덕택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대무신제는 그 이후로도 팽창정책을 지속하여 낙랑을 정복한다.

낙랑 정복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람은 대무신제의 둘째 아들 호동이였다.호동은 낙랑 정복을 위해 낙랑왕 최리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까지 철저하게 정복야욕을 숨기기도 하였다.그러나 호동은 낙랑 정복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다.그는 서기 32년에 대무신제의 첫째 황후가 꾸민 계략에 걸려 어머니를 간통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고,결국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그로부터 5년 후에 대무신제는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낙랑을 복속하게 된다.

하지만 고구려의 낙랑 복속은 동한의 반발에 부딪힌다.동한은 낙랑 지역이 원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돌려줄 것을 주장한다.하지만 고구려가 이에 응하지 않자 동한의 유수는 서기 44년에 바다를 통해 낙랑 지역에 병력을 투입하였고,이에 밀린 고구려는 결국 낙랑을 동한에 뺏기게 된다.'

삼국사기'는 이 사건 이후 살수 이남이 한나라에 속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하지만 이때의 살수는 한반도의 청천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낙랑'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낙랑에 대한 한나라의 대대적인 침입이 있던 서기 44년 10월 대무신제는 향년 4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능은 대수촌 언덕에 마련되었으며,묘호는 대무신제라 하였다.

[번 호] 34 / 46 [등록일] 97년 12월 14일 23:41 Page : 1 / 6

[등록자] LUCIATO

[제 목] [정보/호림] 신삼국사기 고구려본기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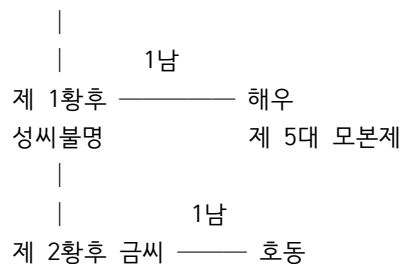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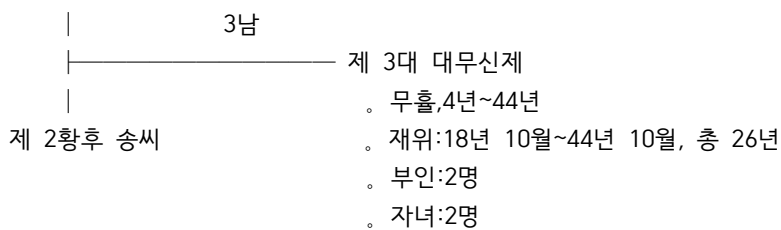
제 3대

대무신제 본기

3.대무신제의 가족들

제 3대 대무신제 가계도

제 2대 유리명제



대무신제의 가족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다만 그에게 2명의 부인이 있었고,그 부인들로부터 각각 1명씩의 아들을 얻었다는 사실만 확인 될 뿐이다.

대무신제의 제 1황후는 제 5대 모본제의 어머니이며,제 2황후는 갈사왕의 손녀 금씨로 호동왕자의 친모이다.이들 가족 중 모본제에 대해서는 모본제 본기에서 다루기로 하고,여기에서는 제 1황후와 제 2황후 금씨,그리고 호동 왕자에 관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제 1황후(생몰년 미상)

대무신제의 제 1황후는 성씨도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그녀에 대한 구체

적인 기록도 거의 없다.다만 '삼국사기' 대무신왕 15년 11월 기사에 그녀에 대한 아주 짧은 언급이 있을 뿐이다.

대무신제에게는 그녀 외에도 또 1명의 부인이 있었다.그녀는 갈사왕의 손녀 금씨이며,그녀의 소생이 호동왕자이다.호동은 대무신제의 총애를 받았고,그 때문에 제 1황후는 대무신제가 그녀 소생인 해우를 태자로 봉하지 않고 호동을 태자로 세울까봐 몹시 염려하였다.

고심 끝에 그녀는 계책을 하나 세웠다.호동이 자신을 욕보이려 했다고 거짓말을 꾸며냈던 것이다.하지만 대무신제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이에 그녀는 울면서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주장했다.

황후의 결사적인 주장에 밀린 대무신제는 드디어 호동을 벌주려 하였다.그러자 이를 안 호동은 스스로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결해버렸다.

제 1황후에 관련된 내용은 이처럼 호동의 기사에 한정되어 있다.제 5대 모본제의 모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출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모본제가 폭군인데다가 자신의 근신 두로에 의해 살해되기 때문일 것이다.

제 2황후 금씨(생몰년 미상)

제 2황후 금씨는 호동의 어머니이며,부여의 왕족 갈사왕의 손녀이다.

제 2황후 금씨에 대한 기록 역시 호동왕자의 기사에 한정되어 있다.그녀의 성씨를 금씨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녀가 갈사왕의 손녀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갈사왕은 금와의 여섯째 아들이기에 금씨 성을 썼을 것이고,그 손녀 역시 금씨라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녀가 대무신제의 두번째 아내가 된 것은 정략적인 이유에서였을 것이다.갈사부여를 개국한 갈사왕은 고구려의 배려 없이는 나라를 지탱할 수 없었고,따라서 조공의 형태를 띠며 고구려 황실과 혼인관계를 맺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호동(?~서기 32년)

호동은 대무신제의 장남이며,제 2황후 금씨 소생이다('삼국사기'는 해우(모본제)를 장남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이는 그가 적통이고 제위를 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호동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사기' 대무신왕 15년 4월과 11월 기사에 실려 있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름 4월,왕의 아들 호동이 옥저에서 유람하고 있었다.그때 낙랑왕 최리가 그곳을 다니다가 그를 만났다.그리고 물었다.

"그대의 얼굴을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니구려.그대 북국 신왕의 아들이 아니오?"

낙랑왕 최리는 마침내 그를 데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그 후,호동이는 본국에 돌아와서 남몰래 아내에게 사자를 보내 말했다

"당신이 국가의 무기고에 들어가서 북과 나팔을 부숴버릴 수 있다면,나는 예를 갖춰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신을 맞

아들일 수가 없소이다."

예로부터 낙랑에는 적병이 쳐들어오면 저절로 소리가 나는 북과 나팔이 있었는데,그 때문에 그녀로 하여금 이를 부숴버리도록 한 것이었다.최리의 딸은 예리한 칼을 들고 남모르게 무기고에 들어가서 북을 찢고 나팔의 입을 베어버린 후,이를 호동에게 알려주었다.호동이 왕에게 권하여 낙랑을 습격하였다.최리는 북과 나팔이 울지 않아 방비를 하지 않았고,우리 군사들이 소리 없이 성 밑까지 이르게 된 이후에야 북과 나팔이 모두 부서진 것을 알았다.

그는 마침내 자기 딸을 죽이고 나와서 행복하였다(낙랑을 없애기 위해 청혼하고,그의 딸을 데려다가 머느리를 삼은 다음,그녀를 본국에 보내 그 병기를 부수게 했다는 설도 있다).

겨울 11월,왕의 아들 호동이 자살하였다.호동은 왕의 둘째 왕비인 갈사왕 손녀의 소생이었다.그는 얼굴이 곱상하여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이에 따라 이름도 '호동'이라고 하였다.

첫째 왕비는 호동이 종통을 빼앗아 태자가 될 것을 염려하여 왕에게 참소하였다.

"호동이 나를 무례하게 대하며,육보이려 하였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왕후는 호동이 다른 사람의 소생이라 미워하는 게요?"

첫째 왕비는 왕이 자기를 믿지 않음을 알고,장차 자기에겐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울면서 말했다.

"청컨대 대왕께서 살펴보소서.만약 그런 일이 없으면,제가 죄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되자 대왕은 호동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그에게 죄를 주려하였다.이 사실을 안 어떤 이가 호동에게 말했다.

"그대는 왜 스스로 해명하지 않는가?"

호동이 대답하였다.

"내가 만일 해명한다면,그것은 어머니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며,부왕에게는 근심을 더해주는 것이니,이를 어찌 호락 할 수 있겠습니까?"

호동은 곧 칼을 품고 엎드려 자결하였다.

이 기록이 호동왕자에 대한 낙랑공주의 애뜻한 사랑,그리고 호동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전말이다.

이 사건은 고구려가 낙랑국을 굴복시킨 이후 호동의 세력이 급성장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며,조정 일부에서는 호동을 태자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대무신제는 제위하자마자 부여를 정복할 계획을 세운다.한의 내분으로 대륙의 정치질서가 문란해진 가운데 고구려는 대륙의 맹주로 성장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부여를 치기로 한 것이다.

고구려의 이 같은 정벌계획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부여왕 대소였다.대소는 대무신제에게 머리가 하나고 몸이 둘인 붉은 까마귀를 보내는데,이는 부여가 고구려를 복속하겠다는 뜻이었다.이에 고구려는 대소의 행위를 선전포고로 해석하고 선제공격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부여를 공격하기 위해 고구려군이 출정한 것은 서기 21년 12월이었다.이 혹한의 겨울에 대무신제는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부여를 향해 진군하

여,이듬해 2월에 날이 풀리자 부여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고구려가 부여의 남쪽 변방을 향해 진군한다는 소식을 들은 대소는 군사를 이끌고 직접 출전하였다.그리고 고구려군이 머물고 있는 곳을 확인하고는 곧장 말을 내달렸다.하지만 그는 고구려군의 계략에 말려들고 말았다.

고구려군은 진군하던 도중에 아주 넓은 개펄을 발견하자 더 이상 진군하지 않았다.개펄 주변에는 강이 흐르고 곧잘 짙은 안개가 끼곤 하였는데,대무신제는 그것을 이용하여 부여군을 무찌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무신제는 개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진을 치고 일부 병사들로 하여금 적이 관찰할 수 있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쉬도록 하였다.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적의 내습을 기다렸다.

맞은편에 있던 부여군은 고구려군이 편안하게 앉아 쉬는 것을 보고,때를 놓치지 않고 기습을 감행하였다.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던 탓에 부여군은 땅바닥이 진흙투성이의 개펄이라는 사실을 미처 간파하지 못했던 것이다.

기습을 감행한 부여군은 졸지에 진흙 수렁에 갇히고 말았다.전위부대인 기마병들은 말이 진흙에 빠져 허둥대는 바람에 어쩔 줄을 몰라했고,그들을 지휘하고 있던 대소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구려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방에서 돌진하였다.돌격대의 선봉장은 괴유했다.그는 부여를 정벌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한 장수였다.키가 9척에 다 힘은 장사였고,무기를 다루는 솜씨도 대단했다.그리고 그의 칼날은 부여왕 대소의 목을 뱉다.

왕을 잃은 부여군은 한동안 허둥했지만 곧 대열을 정비하고 고구려군을 압박해왔다.고구려군은 수적으로 아주 불리한 상태였다.그래서 어느 새 그들은 부여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다.

하지만 부여군은 쉽사리 고구려군을 공격하지는 못했다.단지 겹겹이 고구려군을 둘러싸고 조금씩 조금씩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그들은 고구려군의 식량이 고갈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식량이 고갈되면 스스로 포위망 속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부여군의 판단은 적중했다.시일이 지나면서 고구려군의 군량미는 고갈되었고,그 때문에 군사들은 굶주림에 허덕였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무신제는 두려움에 떨며 탈출로를 모색했다.그렇게 수일이 흘렀을 때 뜻밖에도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다.한치 앞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그 짙은 안개는 7일 동안 계속 끼어 있었고,대무신제는 그 안개를 이용하여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다.

고구려군은 안개 속에서 이른바 '허수아비작전'을 썼다.풀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병영 안팎에 세우고 옆에 병기를 꽂아두었는데,그것이 마치 보초를 서고 있는 병사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부여군은 설불리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때 고구려군은 사잇길을 이용하여 밤낮으로 행군하였고,구사일생으로 위나암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퇴각하는 고구려군은 거의 빈손이었고,수일 동안 굶은 상태였다.가지고 있던 병기와 타고 있던 말,밥을 짓던 가마솥 등 짐이 되는 것은 모두 버리고

오로지 맨몸으로 안개 속을 빠져나와 쫓지가 빠져라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그렇게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여 도성으로 돌아온 대무신제는 경솔하게 부여를 공격한 것을 후회했다.그리고 전사자들의 집안을 직접 위로하고,부상당한 병사들을 문병하는 등 적극적인 수습책을 마련하여 가까스로 백성들의 원성을 누그러뜨렸다.

고구려의 이 같은 타격 못지않게 부여의 피해도 막중했다.그들은 왕을 비롯하여 1만의 군사를 잃었으며,그 여파로 왕족들 사이에 왕위다툼이 벌어져 피비린내나는 정쟁이 벌어졌다.이 때문에 대소의 막내동생은 무리를 이끌고 부여를 빠져나가 압록강 근처에 갈사국을 세웠으며,대소의 사촌동생 중 하나는 1만여 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고구려에 귀순했다.

이 같은 혼란으로 부여의 국력은 점차 약화되어,마침내 고구려에게 북방의 맹주 자리를 내주게 되는 것이다.

고. 한의 위나암성싸움과 을두지의 '잉어계책'

고구려가 팽창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에 위기를 느낀 동한은 서기 28년 7월에 100만의 군사로 고구려를 침략한다.침략의 선봉장은 요동 태수였다.

한군이 침략해 올 무렵 고구려는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재상 좌보와 우보를 중심으로 조정을 운영하고 있었다.이때 좌보에는 을두지,우보에는 송옥구가 임명되어 있었는데,한군의 침략에 대한 서로의 시각이 달랐다.

우보 송옥구는 적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을 주장하며 말했다.

"신이 듣기로는 덕을 믿는 자는 창성하고,힘을 믿는 자는 망한다 하였습니 다.지금 중국에는 흉년이 들어 도적들이 봉기하고 있는데,이유 없이 군사를 일으키니 이는 조정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필시 변방의 장수가 사욕을 채울 목적으로 우리 나라를 침략한 것입니다.이는 하늘의 이치에 위배되고,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우리가 힘 준한 지형에 의지하였다가 불시에 습격을 한다면 적을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좌보 을두지가 송옥구의 주장에 반대하며 나섰다.

"수가 적은 편은 비록 한때 강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수가 많은 편에게 잡히게 됩니다.신이 우리 군사와 한나라 군사의 수를 비교해보았는데,계략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는 있어도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이에 대무신제가 물었다.

"계략으로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을두지가 대답했다.

"지금 한나라 군사들은 원정을 와서 싸우기에 그 기세를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폐하께서는 성문을 닫고 우리 군사를 정비하여,적군이 피로해지기

를 기다린 후에 나아가 공격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대무신제는 을두지의 의견을 따랐다. 그런데 한군은 수십일 동안 위나암성을 둘러싼 채 포위를 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오히려 고구려군이 지쳐버렸다. 더군다나 성안에는 물이 고갈되고 있는 중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무신제는 다시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

"그들은 우리가 암석지대에 머물고 있으므로 성안에 샘이 없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으면 우리가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연못에서 잉어를 잡아다가 수초로 싸고, 술과 함께 한나라 군사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을두지의 의견에 따라 대무신제는 수초로 싸인 잉어와 술을 한나라 군영에 보냈다. 그리고 그들의 위신을 세워주는 내용을 담은 편지도 함께 보냈다. 이에 한의 요동 태수는 성안에 물이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성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스스로 물러갔다.

고구려는 을두지의 이른바 '잉어계책'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을 격퇴하였던 것이다(고구려의 명신들 중에는 이 을두지를 비롯하여 유리명제대의 재상 을소와 그의 후손으로 고국천제대에 재상을 지내는 을파소 등이 있다. 또 백제 온조왕대의 재상 중에도 을음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역시 고구려 출신이다. 이 을씨들은 아마도 고구려 5부족 중 한 종족을 이루는 귀족가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 3대

대무신제 본기

5. 대무신제 시대의 주변 국가들

갈사부여

갈사부여는 서기 22년에 부여 금와왕의 여섯째 아들이 세운 국가이다. 이해에 부여왕 대소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전사하자 남아 있던 대소의 다섯 아우를 비롯한 왕족들간에 치열한 왕위다툼이 벌어진다. 갈사부여를 세운 갈사왕은 이 왕위다툼에서 패배하여 몰래 군사를 이끌고 압록곡 근처로 피신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두왕을 죽이고 갈사부여를 세우게 된다.

갈사부여는 갈사수 근처에 세워졌는데, 이 갈사수는 아마도 요하(당시 압록수)의 지류인 듯하다. 또한 해두왕을 죽이고 갈사국을 세웠다는 것으로 봐서 바닷가에 인접해 있었던 것 같다. 갈사왕이 죽인 해두왕은 '해두'라는 소국의 왕으로 판단되는데, 이 해두라는 명칭이 곧 바닷가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바다에 머리를 내민 듯한 땅, 즉 반도에 위치한 국가를 일컫는다는 뜻이

다.

이렇게 볼 때 갈사부여의 위치는 요하와 발해가 만나는 발해만 연안의 어느 곳에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갈사부여는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모양이다. 호동왕자의 친모이자 대무신제의 두 번째 황후인 금씨가 갈사왕의 손녀라는 사실이 이

를 증명해준다.말하자면 갈사부여는 고구려와 결혼관계를 맺어 안전을 보장 받은 것이다.

하지만 갈사부여는 오래 가지 못한다.제 6대 태조 16년(서기 68년)에 갈사왕의 손자 도두가 항복함으로써 고구려에 복속되기 때문이다.

개마

대무신제 9년(서기 26년)에 고구려는 개마국을 정복하고 그 국왕을 죽인다.이때 고구려가 점령한 개마국은 아마도 '개마대산' 근처에 있던 국가였을 것이다.당시 소국들은 대개 지명을 따서 국명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개마대산에 대한 기록은 '후한서'-동옥저전-에 처음 나타난다.이 기록에서는 "동옥저는 고구려의 개마대산 동쪽에 있다."고 했다.그렇다면 동옥저를 함경도 일대에 설정했을 때 개마대산은 현재의 개마고원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개마국은 개마고원에 있던 소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개마국의 점령은 곧 고구려가 처음으로 한반도에 진출했음을 뜻한다.그 이전의 어떤 기록에서도 고구려가 한반도로 진출할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구다

개마국을 패망시킨 서기 26년에 고구려는 그 여세를 몰아 구다국을 정복한다.개마국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다왕은 스스로 항복해버린 것이다.

개마의 패망소식을 듣고 구다가 항복했다는 것은 구다 역시 개마 근처에 있던 소국이었다는 뜻이 된다.그리고 고구려가 개마를 거쳐 구다로 진군했다는 것은 구다가 개마보다 더 남쪽 혹은 동쪽에 있었다는 의미이다.

낙랑

낙랑은 대무신제 20년(서기 37년)에 고구려에 의해 멸망한 나라이다.그런데 이 낙랑이라는 이름은 한나라 무제가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설치했다는 한사군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낙랑에 대한 기록은 '한서'에 처음으로 나타난다.한나라 무제가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조선 지역에 4개의 군을 설치했다는 다음의 기사가 그것이다

"이로써 마침내 조선은 평정되어 진번,임둔,낙랑,현도 등 4개의 군이 되었다.참을 봉하여 해청후를 삼고 한도를 추저후로 삼았으며,왕겹을 평주후로 삼고 장은 기후로 삼았다.최는 부친이 죽었고,자못 공로가 있었기에 저양후로 삼았다."

여기서 각 지역의 후로 봉해진 5명은 모두 조선의 신하들이었다.한도와 참

은 조선의 재상이었으며,왕겹은 장수였고,장은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 우거의 아들이기에 조선의 태자라고 볼 수 있다.그리고 마지막에 거론된 최는 조선의 재상이었던 노인의 아들이다.

따라서 '한서'의 기록은 한이 멸망시킨 위만조선의 영역을 진번,임둔,낙랑,현도 등 4개의 군으로 나누고 조선인으로서 자신들에게 협력한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나눠주어 자체적으로 통치하게 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이 같은 추론은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그 지역을 안동도호부라 하고 고구려의 마지막 황제 보장제를 조선군왕에 봉하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한으로부터 제후 봉작을 받은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대대로 봉작을 세습하

며 낙랑군을 비롯한 각 지역을 다스렸다는 것이다.즉 한도와 참,왕검,최 등에게는 진번,임둔,낙랑,현도 등을 다스리게 하고 위만조선의 태자인 장에게는 일정한 토지를 떼주고 생활을 보장해주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네 사람 중 누가 낙랑군을 통치하였을까?

고구려에 의해 멸망할 당시 낙랑의 왕은 최리(두 '최' 모두 '높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라는 사람이었다.이는 낙랑군이 최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뜻이 되고,최씨 성을 사용했을 법한 사람으로는 노인의 아들 최박에 없다.즉 위만조선 멸망 후 낙랑군은 최에게 주어졌으면,그 자손들이 그 지역을 다스려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낙랑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었을까? 우선 낙랑이라는 이름에서

그 위치를 설정해볼 필요가 있겠다.

'낙랑'이라는 말을 풀이해보면 '물결을 즐긴다'는 뜻이 된다.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파도를 즐긴다'는 뜻이다.이는 곧 낙랑이 파도가 넘실대는 바닷가에 위치했음을 의미한다.말하자면 낙랑은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였다는 것이다.

낙랑이라는 이름이 처음 언급된 '한서'에는 한사군의 순서가 진번,임둔,낙랑,현도 순으로 되어 있다.이 배열은 아마도 한나라의 수도 장안에서 가까운 순서에 의거했을 가능성이 높다.이 논리에 의지할 때 낙랑은 적어도 현도보다는 한나라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데 '후한서'의 -부여국전-에는 "부여국은 현도의 북쪽 1천 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다시 말해서 현도는 부여국의 남쪽 경계로부터 1천 리 남쪽에 있다는 뜻이 된다.또 '후한서'는 "(부여의) 남쪽은 고구려와 접한다."고 했다.따라서 현도는 고구려의 서남쪽에 있어야 한다.그러나 '후한서'-동옥저전-에는 현도군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무제는 조선을 멸하고 옥저의 땅을 현도군으로 삼았다.후에 이맥들의 침략을 받게 되자 군을 고구려의 서북으로 옮기고,다시 옥저를 현으로 삼아 낙랑의 동부도위에 예속시켰다."

이 기록에서는 현도가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겨갔다고 했다.이는 같은 책 '부여국전'의 "부여국은 현도의 북쪽 1천 리에 있고","부여의 남쪽은 고구려와 접한다."는 기록과 모순된다.또 이 기록에 바탕할 때 군의 위치가 상

황에 따라 옮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후한서'의 편자가 고구려의 땅을 한때 자신들이 지배했다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도의 위치를 조작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한다.

그리고 어떤 기록도 현도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는 주장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또한 낙랑이 현도보다 한의 장안에 더 가까이 있었다는 논리를 여기에 대입한다면 낙랑 역시 한반도 내에 있을 수 없다.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는 낙랑의 위치를 알려주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있다.

"한나라 광무제가 군사를 보내 바다를 건너 낙랑을 치고,그 땅을 빼앗아 군현을 만들었다.이에 따라 살수 이남이 한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대무신왕 27년 9월)

"왕이 장수를 보내 한나라 요동 서안평현을 습격하여 대방의 수령을 죽이고,낙랑 태수의 처자를 빼앗아 돌아왔다."(태조 94년 8월)

이 두 기록을 분석해보면 낙랑의 위치는 좀더 명확해진다.대무신제 27년(서기 44년) 9월에 한나라가 고구려로부터 뺏은 낙랑은 고구려가 대무신제 2

0년에 정복한 곳이다.그렇다면 낙랑은 한에 복속되었다는 뜻이고,그때로부터 102년 후인 제 6대 태조 94년(서기 146년) 8월 기사에 언급되는 낙랑 태수는 바로 한이 서기 44년에 정복한 낙랑 지역의 태수라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고구려군은 낙랑 태수의 부인을 한의 요동 서안평현에서 붙잡아왔다. 이는 서안평현에 낙랑 태수가 있었다는 뜻이 되고,낙랑 역시 한의 요동 서

안평현에 있었다는 뜻이다.

당시 요동은 난하 동쪽,요하(랴오허) 서쪽 지역을 의미하므로 낙랑은 난하와 요하 사이에 있으면서 난하 쪽으로 치우친 바닷가에 있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할 때 대무신왕 27년 기사에 나오는 '살수'는 현재 북한에 있는 청천강이 될수 없다.이 기록에서의 살수는 요하 주변에 있는 어떤 강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이는 612년에 벌어지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청천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려준다(살수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 26대 영양제 본기에서 언급된다).

하지만 한의 요수를 현재의 황하로 설정하는 학자들도 있다.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록은 '삼국사기' 제 5대 모본왕 2년의 기사이다.

"2년 봄,장수를 보내 한의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습격하였다.그러나 요동 태수 채옹이 은혜와 신의로써 대접하므로 다시 화친하였다."

이때 고구려가 점령한 북평. 어양. 상곡은 현재의 북경 근처이며,태원은 당을 세운 이연이 일어났던 곳으로 황하 조금 못미처에 있는 현재의 태원시이다.그리고 이들 지역 중 북평을 제외하고는 모두 난하 서쪽에 있다.그런데 이곳을 고구려가 점령하자 한왕 유수는 요동 태수를 보내 화친을 제의한다.이는 곧 북평,어양,상곡,태원 등이 모두 당시 한나라의 요동에 속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그렇다면 요수는 바로 황하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단지 한나라가 고구려와의 화친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요동 태수를 앞세웠다는 사실만으로 황하를 요수로 설정하는 것은 비약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

。 대무신제 시대의 세계 약사.

대무신제 시대 중국은 왕망의 신이 망하고 동한이 들어선다.한외 재건을 부르짖으며 일어난 동한의 광무제는 주변의 약소국들을 병합하며 팽창정책에 돌입한다.이에 따라 동한과 선비,흉노,오환의 전쟁이 지속되다가 마침내 동한이 중원의 패권을 장악한다.

이 무렵 유럽의 로마에서는 예수교가 일어나 선교활동을 시작하고 예수의 12제자가 각지에서 포교활동을 한다.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스테파노가 첫 순교를 하고 예수교에 입교한 바울이 아테네를 찾아가 포교를 시작한다.이 무렵부터 '신약성서'가 형성된다.

한편,이때 인도에서는 쿠산 왕조가 흥기하여 간다라 문화가 형성된다.

민중원제 본기

1.민중원제의 짧은 치세

(?~서기 48년,재위기간:서기 44년 10월~48년 모월,약 4년)

민중원제는 유리명제의 넷째 아들이자 유리명제의 제 2황후 송씨 소생이며,이름은 해색주이다.

'삼국사기'는 그의 즉위에 대하여 "대무신왕의 아우이며,대무신왕이 죽었을 때 태자가 아직 나이 어려 정사를 담당할 수 없었다.이에 따라 백성들이 해색주를 왕으로 세웠다."고 쓰고 있다.

그의 개인 신상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전부이다.하지만 대신들이 그를 황제로 추대한 것을 보면 그가 대무신제의 동복아우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따라서 그 역시 대무신제와 마찬가지로 유리명제의 제 2황후 송씨 소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중원제가 제위에 오른 것은 대무신제가 생을 마감한 서기 44년 10월이었

다.제위에 오른 그는 우선 그해 11월에 많은 죄수들을 사면하고,이듬해 3월에는 신하들에게 큰 연회를 베풀으로써 새로운 황제의 즉위를 알렸다.

그러나 서기 45년 5월에 동부 지역에 큰 홍수가 나는 바람에 백성들이 굶주리고,유랑민이 늘어나는 등 큰 어려움을 겪는다.이에 민중원제는 국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한다.하지만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서기 46년 겨울에는 설상가상으로 위나암에 전혀 눈이 내리지 않아 백성들은 겨울가뭄에 시달린다.이 같은 국가적 어려움은 민중원제를 고통스럽게 하였고,고통을 이기지 못한 민중원제는 서기 47년에 병으로 드러눕는다.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해 10월에 잠우락부의 대가 대승 등 1만여 호가 낙랑으로 가서 한나라에 투항해버렸다.이때 투항한 사람들은 아마도 한나라에서 멀지 않은 고구려 변방에 살고 있었던 듯하다.또한 먼저 낙랑으로 갔다는 기록으로 봐서는 낙랑과 근접한 지역이었을 것이므로 당시 고구려 변방이던 요서 지역의 주민들일 것이다.나라가 어려워지면서 고구려 조정은 이들에 대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고,이 틈을 이용해 잠우락부의 대가 벼슬에 있던 대승이 반란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주민들과 함께 한나라에 투항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국가의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민중원제는 서기 48년 병이 악화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생전에 사냥을 하다가 민중원에 있는 석굴에 자신을 묻어줄 것을 유언한 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신하들은 그를 민중원의 석굴에 장사지내고 묘

호를 민중원제라 하였다.

제 4대 민중원제 가계도

제 2대 유리명제



 제 2황후 송씨	。해색주,생년미상~48년 。재위:44년 10월~48년 모월,약 4년 。부인:1명 。자녀: ?
	황후
	성씨불명

'삼국사기'는 민중원제의 가족들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 없다.다만 그의 무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왕후와 신하들이 왕의 유언을 어기기 어려워 석굴에 장사했다."는 내용이 남아 있는데,이 기록은 그에게 황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하지만 그의 황후에 대한 더 이상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물론 그의 가족들에 관한 기록도 전무하다.

[번 호] 38 / 46 [등록일] 97년 12월 14일 23:43 Page : 1 / 5
 [등록자] LUCIATO
 [제 목] [정보/호림] 신삼국사기 고구려본기 4-2

제 4대
 민중원제 본기

2.고구려 묘호와 능 위치에 관한 짧은 논고

민중원제의 묘호는 그의 능이 조성된 '민중원'에서 따온 것이다.'삼국사기'는 그의 묘호를 '민중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여기에서는 '민중원제'라고 고쳐서 기록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구려 28조의 묘호 중에서 능의 위치를 그대로 묘호로 사용한 예는 총12번이다.그리고 민중원제는 그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민중원제 이외에도 능이 있는 지명을 그대로 묘호로 사용한 경우는 모본제(5대),고국천제(9대),산상제(10대),동천제(11대),중천제(12대),서천제(13대),봉상제(14대),미천제(15대),고국원제(16대),소수림제(17대),고국양제(18대) 등이다.즉 민중원제가 민중원에 묻힌 것처럼 모본제는 모본에,고국천제는 고국천에,산상제는 산상에,동천제는 동천에,중천제는 중천에,서천제는 서천에,봉상제는 봉상에,미천제는 미천에,고국원제는 고국원에,소수림제는

소수림에,고국양제는 고국양에 묻혔다는 것이다.

이처럼 28제 중 12제의 묘호가 능이 있는 지명과 동일하다.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같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중국의 어느 시대,어느 왕의 묘호에서도 이런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며,백제나 신라. 왜 등 당시의 어느 나라에서도 이 같은 일은 없었다.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능이 위치한 지명을 묘호로

삼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제 10대 산상왕 본기에는 "31년 여름 5월,왕이 죽었다.산상릉에 장례를 지내고,호를 산상왕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이는 능호와 묘호가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이것은 능이 있는 지명이 곧 능호로 사용됐고,그 능호가 다시 묘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말하자면 고구려 28제 중 12제가 묘호와 능호가 같은 것이다.

동서양의 어느 역사책을 뒤져봐도 능호를 묘호로 사용한 경우는 고구려의 12제밖에 없다.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고구려 시대 당시 동북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삼황오제와 하은주 시대에 태평성세를 이룬 왕들의 정치를 모범으로 형성된 이른바 '왕도정치'이념을 구현하고 있었다.때문에 비록 형식적인 차이가 다소 있긴 했지만 당시의 모든 국가들에서 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했다.이는 왕을 세우는 것과 왕에 대한 예의가 동일했다는 뜻이다.

왕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란 신하 된 자로서 왕에게 어떤 예를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적 관례를 의미한다.이 관례에는 왕을 대하는 신하의 언어

와 말투,왕과 왕족의 혼례,왕과 왕족의 상례,이미 죽은 왕에 대한 호칭 등이 당연히 포함되었다.그리고 그 상례를 대표하는 것은 능과 능호였으며,죽은 왕에 대한 호칭이 곧 묘호이다.이 묘호는 그 후손들이 제사를 올릴 때 사용하는 공식적인 존칭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따라서 묘호의 제정은 많은 논의와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졌다.

이것이 왕도정치를 추구하던 당시 동북아시아권의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던 왕에 대한 일반 관례였다.그리고 고구려도 역시 이 국가들 중 하나였다.따라서 고구려라고 해서 이 일반적인 관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유독 고구려에서만 능호가 곧 묘호로 기록된 사례들이 발견된다.그것도 무려 12번이나 반복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의문점을 풀어줄 열쇠는 단 하나뿐이다.그것은 바로 제 19대 광개토제의 비문이다.

광개토제의 정식 묘호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이다.이 명칭의 맨 앞 세 글자,즉 '국강상'은 그가 묻힌 곳의 지명이며 동시에 능호이다.그래서 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국강상에 묻혀 있으며,땅의 경계를 넓게 열어 평안을 가져다준 좋고 위대한 왕.'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고구려 묘호 양식이다.이 광개토제의 묘호를 바탕으로 고구려 묘호를 분석해보면 우선 능의 위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으로 치적,그리고 약칭할 수 있는 호칭,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관용어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이를 간략하게 기호로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묘호 = 능 위치(또는 능호) + 치적 + 약칭 + 일반 관용어

이것을 광개토제의 묘호에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국강상(능호) + 광개토경(치적) + 평안(약칭) + 호태왕(일반 관용어)

따라서 광개토제의 묘호를 약칭할 때는 '평안왕'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그 뒤에 붙는 '호태왕'은 어느 왕에게나 붙었을 법한 일반적인 관용어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에 바탕해볼 때 현재 '삼국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구려

묘호는 잘못된 것이 대다수이다.특히 묘호의 맨 앞에 붙는 능호를 묘호로 착각하고 약칭 기술한 12제의 묘호는 완전히 엉터리라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의 기초가 된 '구삼국사'의 편자들은 고구려 묘호의 특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편한 대로 묘호의 앞머리만 따거나 또는 묘호의 일부분만을 따서 기록했던 것이다.아마 이것은 '구삼국사'를 편찬한 신라인들의 무성의와 자료 부족에서 비롯된 듯하다.

이러한 신라인들의 무성의한 편찬작업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고구려 28제의 묘호조차도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되었다.그 때문에 잘못 전달된 묘호를 그대로 사용하고,또 후대에도 그 묘호를 그대로 물려주어야만 하는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하지만 능이 조성된 곳의 지명을 알았다는 것은 능을 찾아낼 수 있는 단초를 얻은 것이므로

그저 안타까워하고 있을 일만은 아닌 듯하다.

[번 호] 39 / 46

[등록일] 97년 12월 14일 23:44

Page : 1 / 6

[등록자] LUCIATO

[제 목] [정보/호림] 신삼국사기 고구려본기 5-1

제 5대

모본제 본기

1.모본제의 폭정과 두로의 반정

(?~서기 53년,재위기간:서기 48년 모월~53년 11월,약 5년)

모본제는 대무신제의 차남으로 대무신제의 첫 번째 황후 소생이며,이름은 해우(또는 해애루라고도 전함)이다.서기 32년 12월에 태자에 책봉되었으나, 서기 44년 10월에 대무신제가 생을 마감했음에도 그는 어린 탓으로 제위에 오르지 못했고,대신 숙부인 해색주(민중원제)가 제위에 올랐다.그리고 서기 48년에 민중원제가 죽자 그때서야 비로소 고구려 제 5대 황제에 즉위하였다.

모본제의 즉위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그는 이미 태자 책봉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삼국사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모본제의 어린 시절을 추론해보면 다음과 같다.

모본제의 어머니는 대무신제의 정비였다.하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다.그 때문에 대무신제는 후궁을 맞이하게 되었다.새로 입궐한 후궁은 갈사왕의 손녀 금씨였다.그녀는 입궐한 지 오래지 않아 아이를 낳았는데,아들이었다.그때까지 아들을 얻지 못했던 대무신제는 득남한 기쁨으로 아이의 이름을 '호동'이라고 짓는다.

호동은 총명하고 뛰어난 아이였고,장성함에 따라 그의 뛰어남은 주변 국가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게 호동의 명성이 드높아지고 있을 때 뜻밖에도 제 1황후가 아이를 낳았다.대무신제는 그 아이의 이름을 해우라고 지었다('삼국사기'에서는 해우를 맏아들로 기록하고 있다.이는 그가 적통인데다 제위를 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해우가 아직 어린아이로 있을 때 호동은 이미 낙랑공주와 결혼하여 낙랑 정복을 꿈꾸고 있었다.이렇게 되자 자연히 호동은 차기 황젯감으로 지목되고,이에 따라 계승권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가 시작된다.

암투가 벌어지는 가운데,제 1황후는 계승권을 확보하기 위해 호동을 궁지로 몰게 된다.말하자면 호동이 태자에 책봉되리라는 생각에 거만해져 어머니인 자신을 능멸하고 심지어는 옥보이려 한다는 말을 꾸며 호동을 벌출 것을 간청했던 것이다.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간청이 받아들여지자 호동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살을 감행한다.

이 사건은 서기 32년 11월에 발생하였다.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에 대무신제는 해우를 태자에 책봉한다.이때 해우의 나이는 기껏해야 한두 살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왜냐 하면 12년 뒤인 서기 44년에 대무신제가 죽었으나 그는 어리다는 이유로 제위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대무신제가 15세에 제위에 오른 것을 감안하면 당시 해우는 15세도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나이가 어린 탓으로 제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보면 그를 대신하여 섭정을 해줄 모후도 죽고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렇게 되자 어린 태자는 졸지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게 된다.

정식으로 태자에 책봉되었으면서도 제위에 오르지 못한 해우는 민중원제가 제위에 올라 있던 4년여 동안 누차에 걸쳐 죽음의 위기를 넘겼을 것이다.해우는 민중원제에겐 위협적인 존재였을 것이고,그래서 빌미만 있으면 여지없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요행히도 해우는 살아남았다.그리고 서기 48년에 민중원제가 죽자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이때 해우의 나이는 기껏해야 17,8세 정도였을 것이다.

제위에 오른 모본제의 성격에 대하여 '삼국사기'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의 사람됨이 포악하고 어질지 못하여 나라일을 돌보지 않으니,백성들이 그를 원망하였다."

이처럼 모본제는 그다지 덕스러운 성격이 아니었던 모양이다.하지만 즉위 때부터 그런 성격을 드러냈던 것은 아니었다.

모본제는 즉위 이듬해인 서기 49년 2월에 대군은 도원하여 한의 북평,여양

(현재 북경 근처),상곡,태원(현재 화북 지방의 태원으로 황하 동쪽 근거리 에 있음) 등을 습격하여 빼앗는다.이 지역들은 한의 도성인 장안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므로 모본제는 즉위 초년에 벌써 요서 지역을 정벌하고,황하의 동쪽을 모두 장악하였던 것이다.이에 당황한 동한의 유수는 요동 태수 채용을 고구려에 보내 화친을 제의한다.

한의 화친제의를 받은 모본제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한과 고구려 사이에는 한동안 평화가 지속된다.

이 무렵 고구려는 몇 년에 걸쳐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다.즉위년에는 홍수가 나서 20개의 산이 무너지더니,그 이듬해에는 서리와 우박이 심해 농사를 망친다.이에 모본제는 국고를 열어 빈민들을 구제하고 유랑민을 안정시킨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정세의 불안으로 이어졌고,죽음의 위협 속에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모본제는 역모를 두려워하며 모든 신하들과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의 이 같은 행동을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모본왕 4년,왕이 날이 갈수록 포악해져 앓을 때는 사람을 깔고 앉으며,누울 때는 사람을 베고 누웠다.만일 사람이 조금만 움직이면 가차없이 죽였으며,신하 중에서 간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활을 쏘아댔다."

이 짧은 기록은 그의 폭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기술하고 있다.하지만 그의 폭정은 그다지 오래 가지 못했다.

모본제의 충직한 근신 중에 두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그는 모본 출신으로 모본제의 총애를 받았다.그러나 그는 항상 불안해하고 있었다.모본제는 자신이 아무리 총애하는 신하라 할지라도 한순간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렸기 때문이다.그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는 두로에게 어떤 사람이 황제를 죽여버리라고 부추겼다.

"대장부가 왜 우는가? 옛 사람의 말에 '나를 사랑하면 임금이요,나를 학대하면 원수'라고 했다.이제 황제가 포악한 짓을 하여 사람을 죽이니,이는 백성의 원수다.그대는 백성의 원수인 황제 해우를 처단하라."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두로는 서기 53년 11월에 칼을 품고 모본제를 찾아갔다.그러자 모본제는 그를 정답게 맞아들여 앉혔다.그때 두로는 칼을 빼 모본제의 목을 찔러 죽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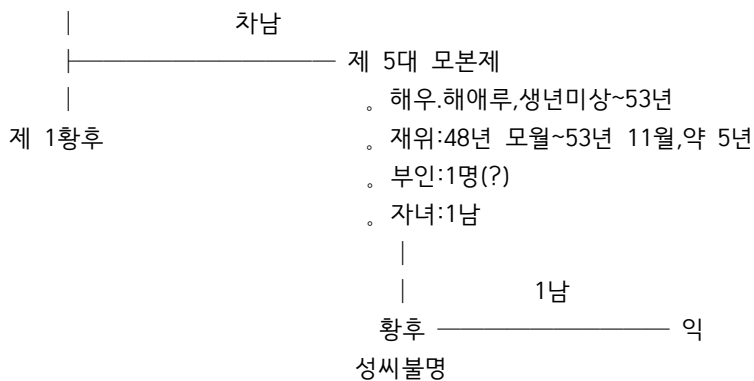
두로의 칼에 맞은 모본제는 즉사하였고,신하들은 유리명제의 여섯째 아들 재사에게서 태어난 궁을 새 황제로 앉혔다.

모본제는 모본 언덕에 마련된 능에 묻혔으며,묘호를 모본제라 하였다.

제 5대 모본제 가계도

제 3대 대무신제

Page : 6 / 6



모본제의 가족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전무하다.다만 모본왕 원년인 서기 48년 10월에 "왕자 익을 태자로 세웠다."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에게 황후와 자식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그 자세한 내막은 알길이 없다.

